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성향주의의 형이상학

2020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나 영 인

성향주의의 형이상학

지도교수 한 성 일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9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나 영 인

나영인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0년 10월

위 원 장 강 진 호 (인)

부위원장 한 성 일 (인)

위 원 천 현 득 (인)

국문초록

성향주의란,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비환원적으로 성향적이라고 여기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상의 성향 혹은 인과력의 근원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대상 자체가 내재적으로 예화하고 있는 자연적 속성에 해당한다. 성향주의자들은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관계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 인과적 · 법칙적 행동들을 대상의 내재적 속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직 대상의 내재적 속성들만을 통해서 설명해내려고 시도한다.

성향주의의 이러한 입장은 범주주의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범주주의에 따르면, 속성의 본성에는 특별할 것이 없으며 그렇기에 원칙적으로 각 대상들의 인과적 능력은 대상이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지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 범주주의자들은 오히려 자연법칙의 역할을 보다 중요시 한다. 즉, 대상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대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느냐보다도 대상이 어떤 자연법칙의 영향력 하에 현실적으로 놓여 있느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만약 성향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대상이 어떤 유형의 인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해당 대상이 어떤 속성을 현실적으로 예화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관계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성향주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대상이 어떤 유형의 인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필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질적 성향주의’라고 불리곤 하는 이 입장에 따르면, 속성의 본질이 그것을 예화한 대상에게 특정한 인과력을 부여해주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

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대상이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지'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존재한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상이 가진 인과력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바로 대상의 속성이다. 이는, 속성의 '본질'이 대상에게 특정한 인과력을 부여해주는 것이라는 성향주의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른 주장이다.

속성과 대상의 성향 혹은 인과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 구도 속에서 나는 본 논문을 통해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범주주의, 성향주의 그리고 질적 성향주의 간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분명히 한다. 인과 · 자연법칙 등과 같은 자연적으로 양상적인 사실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최근 분석 철학 내에서 성향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질적 성향주의는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작업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성향주의를 향해 제기됐던 비판 중 하나인 속성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해서 성향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다. 요지는, 성향주의자들이 각 자연적 속성들의 개별화를 위해 호소하고 있는 속성들의 전체론적 구조를 일종의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와 관련해 성향주의에 대한 이론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질적 성향주의에 대한 성향주의의 이론적 우위를 주장할 것이다. 추론 문제는 규칙성 자체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특정한 규칙성이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성립하게 되는지를 설명해내고자 하는 모든 견해들이 맞닥 뜨리게 되는 설명적 요구이다. 내가 보기에 성향주의의 주요한 이론적 장점은 이러한 추론 문제에 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며, 질적 성향주의는 그럴 수 없는 견해이다. 최

종적으로,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한 성향주의적 해결책이 주어지고,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성향주의의 우위가 보여질 수 있다면, 질적 성향주의가 아닌 성향주의를 채택할 이론적 동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성향주의, 범주주의, 질적 성향주의, 정체성 퇴행, 추론 문제
학 번 : 2017-22963

목 차

들어가는 말 ····· 1

제 1 장 성향주의에 대한 이해 ····· 6
제 1 절 범주주의와 성향주의 ····· 6
제 2 절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 ····· 15
제 3 절 질적 성향주의의 등장 ····· 23

제 2 장 성향주의와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 ··· 34
제 1 절 로우의 문제에 대한 버드의 해석과 답변 ····· 34
제 2 절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은 성공적인가? ····· 46
제 3 절 순환성 반론에 대한 버드의 가능한 답변 ····· 54

제 3 장 추론 문제와 성향주의 ····· 59
제 1 절 법칙주의와 추론 문제 ····· 59
제 2 절 버드의 딜레마 논증 ····· 66
제 3 절 추론 문제와 두 성향주의 ····· 73

나가는 말 ····· 82

참고문헌 ····· 85
Abstract ····· 92

들어가는 말

성향주의는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비환원적으로 성향적이라고 여기는 입장으로서, 이에 따르면 대상이 현실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 혹은 인과력의 근원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대상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 자연세계에 근본적인 속성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란, 대상이 산출할 수 있는 인과적 발현들(혹은 결과들)에 의해서 그 본질이 특징지어지는 속성들을 의미한다.

인과에 대한 흄의 영향력 있는 개념화에 따르면, 모든 사건들은 전적으로 느슨하고 분리돼 있는 것들이다. 서로 구별되는 존재자들 간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흄주의적 견해는, 전통적으로 용해성, 허약성과 같은 성향적 속성들의 예화로부터 비롯하는 인과관계들을 설명해내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속성들의 예화는 그러한 예화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들, 가령 용해됨, 깨짐 등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떤 사건들(가령, 용해됨)은 본질적으로 혹은 형이상학적으로 그것의 원인(가령, 용해성)과 연결돼 있다면, 모든 사건들이 '느슨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흄주의적 견해에서는 이러한 성향성이 세계의 실재적인 특성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기술로부터 비롯한 언어적/개념적인 특성이라고 응수해 왔다. 그리하여 예컨대 소금이 녹는 사건을 야기하는 것은 특정한 사건들(가령, 물에 넣어짐)과 대상의 '구조적' 혹은 '범주적' 속성들(가령, 분자 구조 등) 간의 상호작용으로서 이해된다.

하지만 성향주의자들이 보기에 다른 존재자들에 대한 '방향성'으로서 달리 특징지어질 수 있는 성향성은, 단순히 개념적/언어적 차원에서 성립하고 있는 특성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세계의 근본적인 층위를 이루고 있는 실재적인 특성이다. 성향주의자들은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존재자들이라고 여기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 인과적, 법칙적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성향

주의에 따르면, 질량이라는 속성의 본질은 특정한 힘이 주어졌을 때 대상이 특정한 가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성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전하라는 속성의 본질은 대상에게 양전하를 띤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향을 부여해주는 것이다. 속성의 본질 자체가 그것이 예화된 시공간 구역과 구별되는 구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여하는 것이다. 이처럼 속성의 인과적 역할 자체가 곧 속성의 본질이라고 여김으로써, 성향주의자들은 속성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칙의 존재에 호소하지 않고도 어째서 각 속성들이 시공간에 걸쳐서 특정한 규칙성을 띠며 예화돼 있는지를 설명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성향주의자들은 경험적 탐구를 통해 알게 된 각 속성들의 현실적인 인과적 역할을 속성의 본질로서 여기기에, 예컨대 질량의 인과적 역할과 음전하의 인과적 역할이 뒤바뀐 가능세계들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속성의 인식과 관련한 우리의 직관을 잘 포착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성향주의의 입장은, 대상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속성의 본질이 아닌 우연적인 자연법칙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여기는 범주주의자들의 입장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범주주의에 따르면, 각 자연적 속성들의 내재적 본성에는 특별할 것이 없으며 모든 자연적 속성들은 그것의 인과적/법칙적 역할과는 독립적인 방식으로, 원초적으로 개별화된다. 그렇기에 범주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세계에서 각 속성들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의 인과적 역할과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었을 속성들이며 속성의 인과적 역할은 그저 자연법칙에 의해서 부과된 우연적인 특성에 불과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관계적인 본질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어떤 유형의 인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필연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질적 성향주의'라고 불리는 이 입장에 따르면, 대상에게 특정한 인과력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속성의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해당 대상이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지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존재한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속성의 정체성 자체가 만약 그

것의 인과적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면, 예컨대 고통스러움과 같은 감각질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현상적, 사적인 경험들이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들은 각 속성들이 그것의 인과적 역할을 필연적으로는 수행한다고 여기는데, 이는 대상이 특정한 인과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의 형이상학적인 근거 자체가 바로 속성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속성과 대상의 성향 혹은 인과력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논의 구도 속에서 나는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첫째, 우선 범주주의, 성향주의 그리고 질적 성향주의 간의 차이를 개념적으로 분명히 한다. 인과 · 자연법칙 등과 같은 자연적으로 양상적인 사실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 최근 분석 철학 내에서 성향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질적 성향주의는 그것이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와 같은 작업은 그 자체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나는 속성의 본질 개념을 선-양상적인 것으로서 이해할 것인데, 만약 이것이 각 진영들을 개념적으로 구분함에 있어서 유용한 도구로서 작동한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속성의 본질 개념을 선-양상적인 것으로서 이해할 이유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향주의를 향해 제기됐던 비판 중 하나인 속성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해서 성향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한 선택지를 제시할 것이다. 요지는, 성향주의자들이 각 자연적 속성들의 개별화를 위해 호소하고 있는 속성들의 전체론적 구조를 일종의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이해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안이 설득력이 있다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와 관련해 성향주의에 대한 이론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질적 성향주의에 대한 성향주의의 이론적 우위를 주장할 것이다. 추론 문제는 자연법칙을 규칙성 자체로서 이해하지 않으면서, 어째서 각 속성 예화들이 특정한 규칙성을 띠며 시공간에 배분돼 있는지를 설명해내고자 하는 모든 견해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설명적 요구이다. 내가 보기에 성향주의의 주요한 이론적 장점은 이러한 추론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답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인데, 질적 성향주의는 비록 속성을 '힘 있는' 존재자로서 이해한다는 정신에 있어서는 성향주의와 유사하지만 속성

의 본질에 대한 이질적인 입장으로 인해 추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견해이다. 결국 본고는 (i)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한 성향주의적 해결책의 제시 (ii)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질적 성향주의에 대한 성향주의의 이론적 우위의 입증을 통해서, 만약 각 자연적 속성들을 '힘 있는' 존재자로서 이해하고자 한다면, 질적 성향주의가 아닌 성향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1장의 목표는 범주주의, 성향주의, 그리고 질적 성향주의의 입장을 각각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 견해들이 정확히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를 특징짓는 것이다. 이는 2장과 3장에 걸쳐서 진행될 성향주의와 질적 성향주의에 대한 논의 및 비교를 위한 선행 작업이 될 것이다. 1절에서는 우선 속성과 대상의 인과력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범주주의와 성향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2절에서는, 성향주의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 이들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후 3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적 성향주의를 성향주의와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이 두 견해가 처해 있는 변증법적 상황을 진단한 뒤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계획한다.

2장에서는 성향주의를 향해 제기됐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성향주의의 견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이를 위해 우선 1절에서는 기존에 제기됐던 퇴행 및 순환의 문제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들을 로우가 제기했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와 구분한다. 이후, 로우가 제기한 이 문제를 대표적인 성향주의자 중 한 명인 버드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대처했는지를 살펴본다. 2절에서는 로우의 문제에 대한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로우의 견지에서 봤을 때 왜 문제적일 수가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 그리고 3절에서는 만약 그것이 문제적이라면, 그래프 이론을 바탕으로 한 버드식의 성향주의가 어떻게 재답변할 수 있는지를 제시해 본다.

3장에서는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성향주의가 질적 성향주의보다

우월한 입장임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1절에서 우선 암스트롱으로 대변되는 법칙주의를 향해 제기됐던 추론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이후 2절에서는 법칙주의가 왜 추론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지를 버드의 논증을 통해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추론 문제에 대한 성향주의자들의 답변을 검토한 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성향주의자들과는 달리 오히려 법칙주의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동일함을 지적한다. 이후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몇 가지 가능한 답변들을 검토한 뒤 이들이 모두 그럴 듯 하지 않음을 주장한다.

제 1 장 성향주의에 대한 이해

제 1 절 범주주의와 성향주의

지금 내 눈 앞에서 전자 e^-와 양전자positron e^+가 특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키며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보자. e^-와 e^+는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아니다. e^-는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향, 인과력causal power, 능력capacity 혹은 힘power[1]을 갖고 있는 것이며, 다만 지금 내 눈 앞에서 그러한 성향이 발현되기에 적합한 상황적 요건들이 갖추어진 것일 뿐이다. 즉, e^-은 *충분한 거리가 형성됐더라면*[2],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향을 내재하고 있는 존재자다. 그런데 e^-이 이와 같은 성향(혹은 인

---

1) 관련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논자들이 '성향', '인과력', '힘'과 같은 개념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서로 상호교체 가능한 것들로서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버드Bird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부터 나는 속성과 연계된 인과력들 혹은 성향적인 특성들dispositional characters(여기서 버드가 말하고 있는 '성향적인 특성'이란, 속성이 대상에게 성향을 부여한다는 것을 속성이 그에 상응하는 성향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을 '힘들'이라고 부르겠다. 거칠게 말해, 속성의 힘들이란 그 속성을 예화함으로써 대상에게 부여되는 성향들이다.(Bird(2007:71)" 마찬가지로 코리Corry 역시 "성향이란, 적절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 특정한 행동을 발현할 경향성, 능력, 힘 혹은 잠재력이다."와 같이 말하고 있다.(Corry(2016:264))

2) 엄밀히 얘기해서, 두 전하들은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전하와 연계돼 있는 성향들의 전형적인 촉발 조건을 '거리'라고 여기는 것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의미의 촉발 조건은 전형적으로 혹은 심지어 필연적으로 언제나 주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하들이 서로 전기적으로electrically 고립돼 있지 않다.'와 같은 것이 전하와 연계된 성향들의 전형적인 촉발 조건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하들은 서로 전기적으로는 고립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덕분일까? 물론 그것은 기본적으로 e^-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덕분일 것이다. 만약 e^-이 아무런 전하도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였다면, 전하를 띤 대상들에게만 내재돼 있을 수 있었을 각종 성향들을 e^-은 갖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e^-은 <음전하임>이라는 자연적 속성을 내재적으로 예화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리 세계가 우연하게도 쿨롱의 법칙Coulomb's Law이 적용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된 것일까?

자연세계의 대상들이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 덕분에 특정한 성향, 인과력, 혹은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은 많은 철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루이스Lewis는 "자연적 속성들이란 그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유사성이 형성되는 것들이자 인과력들과 관련된 것들이다."(Lewis(1983):347)라고 말하고 있으며, 암스트롱Armstrong 역시 "만약 대상이 어떤 보편자를 예화한다면, 그것 덕분에 대상은 특정한 방식으로 행위할 힘을 갖게 된다."(Armstrong(1989):82)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인과와 속성 간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직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예를 들어, 창문을 향해 내던져진 벽돌 때문에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보자. 이 벽돌이 유리창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벽돌의 색깔이 빨강색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벽돌이 유리창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무게와 속도를 지니고 있었던 덕분이다. 즉, 대상이 어떤 속성을 예화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가능하게 취할 수 있는 인과적/법칙적 행동들(혹은 대상이 들어설 수 있는 인과적/법칙적 관계들) 및 다른 대상들과의 인과적/법칙적 상호작용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철학자들은 자연적 속성들이 대상을 단지 질적으로qualitatively 특징지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특정한 유형의 인과적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는 성향(혹은 인과력)을 부여confer해주고 있기도 한 존재자들이라고 생각한다.[3]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3) 혹자들은 대상이 특정한 속성을 예화하고 있는 덕분에 특정한 인과적/법칙적 관계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 자체가 속성 실재론을 받아들일 좋은 동

들어보면,

(1) <칼 모양으로 생김>은 (특정한 크기 속성 및 물리적 재질 속성들과 함께 예화됐더라면)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인과력을 부여해준다.[4)]
(2) <구리임>은 전기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다.[5)]
(3) <수용성임>은 소금을 녹일 수 있는 성향을 부여해준다.[6)]
(4) <질량이 M임>은 시공간을 뒤틀 수 있는 힘을 부여해준다.

임의의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7)] P와 담지자 x에 대해서, P가 x에게 속

기가 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크레인Crane은 "인과와 관련해, 원인이 그것의 속성들 덕분에 결과를 갖게 된다는 사실만큼 분명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Crane(1992:190))라고 말하면서, 속성에 대한 철저한 유명론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이해했던 데이빗슨Davidson(1967)의 견해를 비판한 바 있다. 첨언하자면, 데이빗슨에게 있어서 '진정한' 인과적 설명과 '가짜' 인과적 설명 간의 차이를 근거해줄 수 있는 것은 각 사건들을 구성해주고 있는 속성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각 사건들에 대한 기술description에서의 차이뿐이다. 즉, 인과적 설명력에 있어서의 차이가 실재 세계의 객관적 특질에서의 차이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4) Shoemaker(1980)

5) Audi(2016:833)

6) Bird(2007:67)

7) 자연적 속성을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이다. 다만, 자연적 속성들은 모든 술어들에 대한 의미론적 값을 제공해줄 수 있는 충만한 개념으로서의 속성들이 아닌 희박한 개념으로서의 속성들이자, <초랑임>, <건물로부터 50m 떨어짐>, <박지성이 10년간 사용했던 축구화임>과 같은 '그저-케임브릿지mere-Cambridge' 속성들이 아닌, 대상의 진정한 변화와 관련한 속성에 해당한다. 특히, 쉐퍼Schaffer는 자연적 속성들을 "(대상의) 인과력이 달려있는, 자연세계의 결을 가르는 희박한 속성들"(Schaffer(2004:92))이라고 특징지은 바 있다. 자연적 속성의 특징과 관련해 본고에서 특히 주요한 것은, 자연적 속성들이 단순히 대상들 간의 질적 유사성을 설명해주는 속성들이 아니라 자연과학의 탐구 대상이 되는 속성들이자 인과 · 자연법칙 · 성향의 발현 등에서 같이 대상의 진정한 변화에 관여하는 속성들이라는 점이다.

성 M의 예화를 산출할 수 있는 성향 D를 현실적으로 부여해주고 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음전하임>은 현실세계 — 쿨롱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 에서 전자 e^-에게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성향을 부여해주고 있다. 이는 그 본디 의미를 큰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달리 이해될 수도 있다: <음전하임>은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긴다*는 인과적 역할causal role을 수행하고 있는 자연적 속성이다.

이때, P와 D 간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첫 번째 입장은, P가 x에게 오직 우연적으로만 D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범주주의categoricalism'라고 한다.

[범주주의]
모든 근본적인[8] 자연적 속성 P와 담지자 x에 대해서, P는 그 자체로 x에게 D를 부여해줄 수 없으며 오직 우연적으로만 D를 부여해줄 수 있다.

범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철학자들로는 루이스(1983, 1986, 2009)와 암스트롱(1983, 1989, 1997)이 있다. 범주주의에 따르면, 자연적 속성들의 본질은 성향(혹은 인과력)을 부여해주는 것에 있지 않다. 범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속성의 내재적 본성에는 특별할 것이 없으며"(Lewis(1986:205)), "속성들은 자립적인 존재자들로서 각자 스스로를 지키고 있을 뿐keeping themselves, 그러한 속성들 덕분에 산출되는 추가적인 결과들을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가리키고 있지 않는다not pointing beyond themselves."(Armstrong(1997:80)) 이들이 보기에, 모든 자연적 속성들

8) 어떤 속성이 근본적이라는 것은, 거칠게 말해,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속성 혹은 속성들의 복합에 의해 환원되지 않는 속성들을 뜻한다.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비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의 인과력은 그것의 인과적 기저를 이루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의 인과력에 의해서 환원적으로 설명된다는 점이다.

은 <세모남>, <둥그스름함>과 같은 시공간적 속성들, <분자구조가 H2O임>과 같은 구조적 속성들, 혹은 <고통스러움>과 같은 감각질과 같이, 그것이 어떤 인과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는 얼마든지 독립적인 방식으로 정의[9]될 수 있는, 범주적 · 발생적occurrent · 질적qualitative인 속성들일 뿐이다.

범주주의자들은, 만약 자연적 속성들에게 본질이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임>, <항이 n개임>, <보편자임>과 같은 사소한 의미의 본질들뿐이라고 생각하며, 만약 속성에게 어떤 본질적인 역할이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대상이 *현실적으로* 어떤 질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특징 지어주는 것일 뿐 대상이 *가능하게* 어떤 인과적/법칙적 행동들을 취할 수 있는지를 특징 지어주는 것에 있지 않다고 여긴다. 그렇기에, 범주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국지적 속성 예화들과 함께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없는지, 일어나야만 하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 자체로는 어떠한 것도 함축하지 않는 [...] 내재적으로 비양상화된de-modalized"(Jacobs(2007:44))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루이스의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블랙Black의 다음과 같은 기술은, 루이스뿐만이 아니라 암스트롱을 비롯한 범주주의자들 일반의 속성 이해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 루이스는 근본적인 속성들이 그것의 인과력에 의해서 이뤄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인과력을 본질적으로 갖는다는 것 역시 거부한다는 점에서 흄을 따

---

9) <둥그스름함>은 그것을 예화한 대상으로 하여금 경사면을 구를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대상이 어떤 인과적/법칙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둥그스름함> 역시 담지자에게 *경사면을 구를 수 있는* 성향(혹은 인과력)을 부여해주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대상이 경사면을 구를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한 <둥그스름함>의 기여는, <둥그스름함>에게 있어서 오직 우연적인 기여에 불과할 뿐, 그러한 기여 자체가 <둥그스름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이 둥글다는 것을 대상이 둥글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인과적/법칙적 행동들과는 독립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며, <둥그스름함>이라는 속성은 순수하게 기하학적으로 정의될 수 있는 속성이다; 어떤 대상이 둥글다는 것은 해당 대상이 특정한 점으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있는 모든 점들을 표면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다.

> 르고 있다. [...] 근본적인 흄주의적 속성에 있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과의 동일성과 그것의 다른 속성들과의 구별됨 뿐이다. 근본적인 흄주의적 속성들은 내재적으로 무력하고 자립적이다.[10)]

범주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은 그것들 자체로는 대상이 어떤 인과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결정해줄 수 없기에, 범주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속성들을 연계해줄 수 있는 자연법칙의 존재에 호소한다. 즉, 각 대상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성향(혹은 인과력)을 갖게 될 것인지는, 그 대상이 어떤 속성을 내재적으로 예화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속성과 관련해 어떤 자연법칙이 현실적으로 성립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범주주의는 종종 '속성 + 자연법칙 견해' 혹은 '법칙 견해'[11)]라고도 불린다.

<음전하임>을 예로 들어보면, 범주주의에 따르면, <음전하임>은 오직 쿨롱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가능세계들에서만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성향을 담지자에게 부여해줄 수 있다. 즉, 쿨롱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지 않았거나 혹은 <음전하임>과 관련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자연법칙이 성립하고 있었더라면, <음전하임>은 e^-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성향 — 예를 들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어내는 — 을 부여해줄 수 있었던 것이다. 범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각 자연적 속성들의 인과적 역할은 속성의 본성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저 자연법칙에 의해서 우연하게 부과된, 부유하는float free 특

---

10) Black(2000:91) 속성에 대한 이러한 범주주의적 이해는, 블랙도 지적하고 있듯, 감각적 성질들sensible qualities에 대한 흄의 다음과 같은 생각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 있다: "대상의 첫 번째 나타남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게 될지 결코 추측해낼 수가 없다. [...] 실재 세계에는, 그것의 감각적 성질들로부터 힘 혹은 에너지를 발견하게끔 해준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산출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대상이 뒤따를 것을 상상할 근거를 주는 물질들은 없다. 견고함, 연장, 움직임; 이러한 성질들은 그것들 자체로 완전하며, 그것들로부터 따라 나올지도 모르는 그 어떠한 사건들도 **가리키지 않는다never point out**."(Hume(1748/1975), Mumford(2004)에서 재인용)

11) Contessa(2019:161)

성일 뿐이다.

반면, 두 번째 입장은 P가 우연적으로만 D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D를 부여해준다는 것 자체가 바로 P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성향주의dispositionalism'라고 한다.

[성향주의]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 P와 담지자 x에 대해서, P는 그 자체로 x에게 D를 부여해주는 것으로서, x에게 D를 부여해준다는 것 자체가 곧 P의 본질이다.

슈메이커Shoemaker(1980), 몰나르Molnar(2003), 하일Heil(2003), 보스톡Bostock(2003), 멈포드Mumford(2004), 버드(2007), 마모도로Marmodoro(2010), 야콥스Jacobs(2011), 윌리엄스Williams(2019) 등으로 대변되는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은 그 본성이 비환원적으로 성향적(혹은 '힘이 있는powerful')인 것들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은 범주주의자들의 생각처럼 오직 사소한 의미의 본질만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혹은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다. 즉, 대상이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특정한 유형의 인과적 결과들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자연적 속성들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속성들로서 성향주의자들이 가장 즐겨 드는 사례는 아원자 입자들이 갖고 있는 질량, 전하량, 스핀값과 같은 과학적 속성들이다. 성향주의자들이 보기에, 이와 같은 과학적 속성들의 본질은 다른 무엇도 아닌 그것의 인과적 역할 뿐이다. 이는 한편으로 성향주의자들이 자연주의적인 이론적 동기를 갖고 있는, 혹은 자연주의에 친화적일 수 있는 견해임을 말해주는 바이기도 하다. 자연주의를 대략 '자연세계에 대한 철학적 이론화는 과학적 사실들 및 논제들과 어울려야commensurate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음전하임>과 같은 과학적 속성들의 이론적 역할, 즉, 다름 아닌 그것의 인과적/법칙적 역할을 <음전하임>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성향주의는 자연과학의 관습practice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견해라고 볼 수 있겠다.(Wilson(2005:439-440))

본질적으로 '성향적'[12]이라는 표현이 암시해주고 있듯, 성향주의자들은 각각의 자연적 속성들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그 자체로* 함축해낼 수 있는, '방향성directedness'[13]을 (존재론적으로 진지한 의미에서) 갖고 있는 존재자들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P를 예화하고 있는 대상이 M의 예화를 발현할 성향(혹은 인과력)을 현실적으로 갖고 있다면, 성향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는 속성 P와 속성 M이 무수히 많은 가능세계들에서 서로 규칙적으로 연계돼 있다는 것으로서 환원적으로 이해되는 것도 아니며[14], 속성 P와 속성 M이 법칙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끔 해주고 있는 자연법칙(가령, 암스트롱의 이차 보편자 N)이 P와 M보다 근본적인 것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덕분도 아니다.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P는 그 자체로 M을 '향하고 있는' 속성이며,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P는 비환원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다. P의 담지자들은, 이처럼 M을 향해 있는 P를 내재적으로 예화하고 있는 덕분에 M의 예화를 발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즉, 대상의 내재적[15] 속성들 자체가 바로 대상이 갖는

---

12) 성향이라는 것이 언제나 'Φ하기 위한 성향' 혹은 'Φ할 수 있는 성향'과 같이, 그것과 연계돼 있는 발현 유형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며, 그러한 의미에서 목적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은 성향성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13) Molnar(2003). 몰나르는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를 '방향성'이라고 보았다. 몰나르는 특히, 이러한 방향성이 심적 지향성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물리적 지향성physical intentionality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4) 전형적으로 흄주의자인 루이스가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을 외재적으로가 아니라 내재적으로 예화할 수 있다는 조건은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사뭇 중요한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무게가 n임>과 같은 속성들을 예화함으로써 대상이 갖게 되는 성향들을 생각해보면, 이는 <질량이 m임>과 연계돼 있는 성향들과는 달리, 대상이 처한 외적인 상황들(가령, 지구에서 달로 이동했다든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는 <무게가 n임>과 같은 속성은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라고 보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각종 성향들 혹은 인과력들의 원천인 셈이다.

그렇기에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가령 e^-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사실은, 자연법칙의 존재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e^-이 <음전하임>이라는 속성을 예화하고 있다는 것만을 통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성향을 부여해주는 것 자체가 바로 <음전하임>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e^-은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각 가능세계들에서 쿨롱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는 덕분에 양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본성상 특정한 인과적 발현들을 향해 있는"(Tugby(2013:452)) <음전하임>을 예화하고 있는 덕분에 양전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속성의 '무엇임'인지가 바로 그 속성을 예화함으로써 대상이 어떤 것들을 해낼 수 있는지에 의해서 정의되는 셈이다.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이러한 성향주의적 이해는, 기존의 범주주의적 이해와 대비하여, 다음의 버드와 야콥스의 인용문들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 [루이스와 암스트롱의 견해] 모두 속성이 '무엇이라는 것'과 속성이 '무엇을 한다는 것' 사이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대상의] 행동, 혹은 행동의 특정한 패턴들을 향한 경향성은 속성들 안에 장착돼be built into 있어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속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줄, 외적인 규칙들로서의 법칙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법칙들 역시 속성들 안에 장착돼 있을 것이다.[16]

> 루이스에 의해서 두드러지게 옹호된 신흄주의적 형이상학에 따르면, 세계는 개별적이고 국지적인 사실들의 거대한 집합체에 불과하다; 그곳엔 그저 하나의 작은 것 다음에 그것과 다른 또 하나의 작은 것이 있을 뿐이다. [...] 세계는 사실들의 모자이크와 같으며 사실들 간의 연결들 — 법칙적, 인과적, 혹은 양상적 — 은 모자이크 안에서의 패턴에 수반한다. 모자이크의 '색

할 수 있다.

16) Bird(2007:vii)

깔'이라고 할 수 있는 속성들은 순수하게 질적일 뿐이다. 속성들은 그 어떠한 내재적인 법칙적, 인과적, 혹은 양상적 특성도 지니고 있지 않는 무력한 것들에 불과하다. 속성들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오직 자연법칙에 의해서만 연결되는데, 이 자연법칙들 역시 그 자체로 속성들의 모자이크에서의 우연적인 패턴일 뿐이다. [...] 현대의 [성향주의자]들이 봤을 때, 신흄주의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극단적으로 우연적이며, 이는 세계를 이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 위협을 가한다. 그러한 세계에서, 사건들은 그 어떠한 진정한 단일성도 갖고 있지 않다. 속성들에 대한 범주주의를 그 원흉으로 삼을 만하다. [...] 반면,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속성들은 내재적으로 힘이 있으며powerful, 그것들의 고유한 인과적, 법칙적, 양상적 특성들로 가득 차 있다.[17]

제 2 절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

성향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의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의 인과적 역할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동일한 '양상적으로 고정된modally fixed'(Bird(2016:6)) 속성들이라는 점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이기 위해, 몇 가지 단계들을 밟아보도록 하자. 우선 임의의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 P에 대해, P가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 즉, 대상에게 특정한 성향(혹은 인과력)을 부여해준다는 것이 P의 본질이라는 것은 다음의 (1)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Yates(2013), Jaag(2014))

$$(1)\ \Box_P(Px \rightarrow Dx)$$

여기서 "$\Box_P$"은 'P의 본성상it lies in the nature of P' 혹은 'P의 본질에 따르면it is part of essence of P'을 의미하는 본질주의 문장 연산자로서, 본질 개념에 대한 선-양상적 이해를 바탕으로 파인Fine이 새로이 도입한 문장 연산자에 해당한다.[18] 이에 따르면, (1)의 의미는 다음과 같

17) Jacobs(2011:81)

다: P를 예화하고 있는 대상이 성향 D를 갖게 된다는 것은 P의 본질을 이룬다constitute. 혹은, 'x가 P를 예화하면, x는 D를 갖는다.'는 명제는 P의 본성 덕분에 참이다. 예를 들어서, e^-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음전하임>의 본질 덕분에 성립하는 사실인 것이다.(혹은 'e^-은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명제는 <음전하임>의 본성 덕분에 참이다.)

파인, 로우Lowe 등으로 대변되는 본질 개념에 대한 선-양상적 이해Pre-modal Account에 따르면, 임의의 구체적 대상 x와 속성 F에 대해서, x가 F를 본질적으로 가지면, 필연적으로 x는 F이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본질 개념에 대한 이러한 선-양상적 이해는, x에 관한 필연적 참들이 곧 x에 관한 본질적 참임은 아니라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서, 본질 개념을 보다 결이 곱게fine-grained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집합–원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소크라테스}에게는 본질적이지만, 소크라테스에게는 본질적이지 않다. 즉, {소크라테스}의 물적 정의real definition에는 소크라테스와의 집합-원소 관계가 포함돼 있지만, 소크라테스의 물적 정의에는 그러한 관계 맺음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이다. 선-양상적 견해에서는 이러한 비대칭성을 원초적인 문장 연산자 "$\Box_x$"을 통해 다음과 같이 포착한다: 다음의 (2)는 참이지만, (3)은 거짓이다.

(2) $\Box_{\{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집합-원소 관계를 맺는다.)
(3) $\Box_{소크라테스}$({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가 집합-원소 관계를 맺는다.)

(1)은, 이와 같은 선-양상적 본질 개념을 속성의 본질 개념에 확장 및 적용하여 성향주의의 본질주의 논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 대상의 본질과 관련해서는 본질 개념에 대한 양상적 이해보다는 선-양상적 이해를 채택할 좋은 동기들이 이미 제시됐고(Fine(1994)), 덕분에 많은 철학자들이 구체적 대상의 본질적 속성들을 선-양상적 본질 개념

18) Fine(1995)

을 통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속성의 본질 개념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두 개념화 중 어떤 것을 채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이츠Yates 등이 성향주의의 본질 개념을 양상적인 본질 개념으로 이해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독립적인 맥락에서 설득력 있게 지적한 바 있고,[19] 비록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가장 대표적인 성향주의자 중 한 명인 버드 역시 다음과 같은 인용문을 통해 선-양상적 본질 개념을 채택할 유인을 강화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 역시 성향주의의 본질 개념을 선-양상적인 것으로서 이해하도록 하겠다.

> 속성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다는 것 혹은 본질적으로 성향적이라는 것은 속성이, 성향적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어떤 본질을 갖는다는 것이다. [...]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속성의 본질들은 **물적real 본질들**로서, 이는 단순히 (속성에) 상응하는 용어의 의미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속성의 본성에 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향주의에 따르면, 어떤 속성 P의 물적 본질은 특징적인 자극 S에 반응하여 특징적인 발현 M을 산출하는 성향을 **포함include**한다.[20]

>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은 양상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자신들이 아닌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깨지기 쉬움>이라는 비근본적인 속성을 유비로 들자면, 깨지기 쉬운 꽃병은 만약 부딪혔더라면 깨졌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깨지기 쉬움>이 **물적 본질**을 갖는다면, 그 물적 본질은 꽃병에 예화됨으로써,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깨짐>이다. 이때, 이 <깨짐>은 꽃병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 비현실적인 <깨짐>에 해당한다.[21]

---

19) Yates(2012)

20) Bird(2007:45). 버드는 여러 각주들에서 파인의 작업(1994)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필자의 지적대로, 선-양상적 본질 개념을 채택할 유인이 특별하게 없다고 여겼던 탓인지, 버드는 “필연적으로”와 “본질적으로”를 상호 교체 가능하게 사용하고 있다.

21) Bird(2007:6)

선-양상적 본질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본질-포함essene-involvement' 개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의 두 속성 P와 Q에 대해, P의 본질(혹은 물적 정의)에 Q(혹은 Q에 대한 명제)가 포함돼 있다. iff $\Box_P$ ...Q...가 참이다. 즉, 속성 Q를 구성요소로 갖고 있는 명제가 P의 본질 덕분에 참이라면, P의 본질에는 Q가 포함돼 있는 것이다. 혹은, Q를 구성요소로 하는 명제 자체가 P의 본질에 포함돼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나아가, 존재론적 의존 개념 역시 이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속성 P가 속성 Q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iff P의 본질에 Q가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용어 및 개념의 사용은, 선-양상적 본질 개념을 채택하기로 한 이상, 특별히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컨대, 파인에 따르면, 만약 (2)가 참이라면, {소크라테스}의 구성적 본질constitutive essence에 소크라테스가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본질 덕분에 참인 명제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왕Wang 역시 성향주의의 본질 개념을 선-양상적인 것으로서 이해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Wang(2020))

> x는 y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iff y가 x의 본질 덕분에 참인 명제의 구성요소이다 [...] x는 y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iff y가 x의 본질에 참가한다figure in [...] 본질에 대한 논의들은 주로 다른 유형의 존재자들보다는 대상들의 경우에 집중돼 왔다. 하지만 속성들도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빨간 구체임>라는 속성을 고려해보자. 그럴듯하게, 그것의 본질은 <빨강임>과 <구체임>을 포함하고 있다. <빨간 구체임>은 이러한 속성들을 부분전체론적 부분으로 갖고 있거나 혹은 이러한 속성들과 어떤 비-부분전체론적인 구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설령 이들 속성들이 서로 구성적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속성 y가 속성 x의 본질에 참여한다 iff x의 예화가 본질적으로 y의 예화를 포함한다.[22]

22) Wang(2020:44)

다시 (1)로 돌아와서, 일단 (1)이 주어졌다고 했을 때, 임의의 존재자 x와 x에 관한 명제 p에 대해, p가 x의 본성 덕분에 참이면, p는 필연적으로 참이므로[23] (1)로부터 (4)가 따라 나온다.

(4) $\Box(Px \rightarrow Dx)$

이때, "Dx", 즉, x에게 성향 D를 귀속한다는 것이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성향 D와 연계된 전형적인 자극 유형 속성 S 및 발현 유형 속성 M이 존재하며, 성향 귀속 문장disposition ascription sentence "x는 S 유형의 자극이 주어졌을 때 M 유형의 발현을 산출할 성향 D를 갖고 있다."의 의미는 "만약 x가 S 유형의 자극을 받았더라면, x는 M 유형의 발현을 산출했었을 것이다."와 같은 반사실 조건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즉, 다음의 (CA)가 참이라고 가정해보자.

(CA) $(Dx \left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24]

(CA)에 따르면, 예컨대, 만약 x가 깨지기 쉬운 꽃병이라면, x는 바닥에 떨어졌더라면, x는 깨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만약 x가 녹기 쉬운 소금

23) Yates(2012), Fine(1995)

24) (CA)와 관련해 두 가지 사안을 지적할 필요가 있겠다. 첫째, (CA)를 바탕으로 성향주의의 주장을 개념화하는 버드에 따르면, (CA)는 "D", 즉 성향적 표현의 의미에 대한 (비성향적 표현들에 의한) 분석analysis으로서 이해되기 보다는, 성향들과 조건문들 간의 필연적 동치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해돼야 한다.(Bird(2007:43)) 둘째, 나는 (CA)가 참이라는 가정을 오직 P를 개념화할 수 있는 하나의 편의적 방식으로서만 채택할 것이다. (CA)는 성향 귀속 문장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관련한 *의미론적* 논제인 반면, 성향주의는 속성의 본성과 관련한 *형이상학적* 논제이다. "녹기 쉬운", "깨지기 쉬운"과 같은 성향적 표현에 대한 언어적 분석의 성공 여부가,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 실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며 그 역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성향주의는 (CA)가 아닌 분석 방식과도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

이라면, 만약 x가 물에 넣어졌더라면, x는 녹았을 것이다. 즉, (CA)에 따르면, 대상에게 어떤 성향이 귀속돼 있다면, 해당 대상은 특정한 유형의 자극에 반응하여 특정한 유형의 발현을 산출한다.

(4)와 (CA)를 결합해보자. 그렇다면 다음의 (5)가 따라 나온다.

$$(5)\ \Box(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5)는 P가 성향적인 본질을 갖게 됨으로써 어떤 사실들을 함축해낼 수 있는 존재자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5)에 따르면, P와 연계돼 있는 전형적인 자극 유형 속성 S와 발현 유형 속성 M이 있어서,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P를 예화한 대상들은 S 유형의 자극을 받았을 때, M 유형의 발현을 산출한다. 즉, P를 예화한 대상들은 S 유형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인과적/법칙적 행동들의 유형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M 유형으로서 고정돼 있는 것이다. 성향주의자들은 이러한 특성을 '양상적 고정성'이라고 부른다. 대상이 S 유형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M 유형의 발현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P의 인과적 역할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양상적으로 고정돼 있는 것이다.

> 모든 [성향주의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은, 동일한 [속성들]은 다른 성향적 특성 혹은 인과적 역할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특성 혹은 역할은 가능세계들을 걸쳐서 고정돼 있다. 이러한 특성을 나는 '양상적 고정성'이라 부르겠다. [...] 이처럼 양상적으로 고정된 속성들은 퀴디티quiddity들과는 구별된다. 후자는 원초적인 정체성을 갖는 속성들이다; 이들은 그것의 성향적 특성을 세계들에 걸쳐서 유지하지 않는다; 이것들은 양상적으로 가변적인 속성들이다.(Bird(2016))

P를 <음전하임>으로 대체하여 이해해보면, 그 의미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5)에 따르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음전하임>을 예화한 대상들은 양전하를 띤 대상과 적절한 거리를 형성(S)하게 됐더라면, 끌어당기는(M) 유형의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 즉, 양전하를 띤 대상과 적절한 거

리를 형성하게 됐을 때, <음전하임>을 예화한 대상이 취할 수 있는 인과적/법칙적 행동의 유형은 <끌어당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형이상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성향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의 두 번째 특징은, 속성들의 '무엇임what it is to be'인지가, 즉 그것의 정체성identity이, 그것이 맺고 있는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존재자들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P가 현실적으로 자극 유형 속성 S 및 발현 유형 속성 M과 연계돼 있다고 했을 때, S 및 M과 (이차 관계인) *자극 - 발현 관계* R을 맺고 있다는 것은 P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즉, S 및 M과의 R 관계맺음은 P의 정체성을 형이상학적으로 결정해주는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S 및 M과의 R 관계맺음은 P가 무엇인지를 이룬다constitute. 그렇기에 R1(S, M, P)라는 3항 관계를 P가 현실적으로 맺고 있다고 했을 때, — 예컨대, R1(<거리를 형성함>, <끌어당김>, <음전하임>) — P는 이러한 3항 (이차) 관계 R1에 그저 우연히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P에게 있어서 그러한 R1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며, 그렇기에 임의의 자연적 속성이 S 및 M과 R1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 P일 수는 없게 된다.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에 대한 위와 같은 이해는, 성향주의자들이 자연적 속성들 간의 인과적/법칙적 관계를 다음과 같은 의미의 'B-내적 관계'로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B-내적관계: 관계 R은 내적이다 iff R에 의해 연결된 관계항이 부분적, 혹은 전적으로 관계 R에 들어섬으로써 이뤄진다.[25]

B-내적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바커에 따르면,

> 'B-내적'이란, 절대적인 관념론자 브래들리의 이름을 따른 것이다. 브래들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대상들도 전체와 구분되지 않는다. 실재는 원자들의 복수가 아니라, 서로 관계적으로 이뤄진 존재자들의 복수이다. 모든 관

25) Barker(2009: 247)

계들은 (다른 존재자를) 이루는constituting 역할을 수행하며, 어떠한 대상들도 단항적으로monadically 이뤄져 있지 않다.[26]

성향주의자들이 자연적 속성들을 '힘이 있는powerful' 속성들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신비로운 인과적 움프oomph와 같은 것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이 다른 속성들과 상대적으로 맺고 있는 특정한 이차 양상적 관계들에 들어섬으로써 고정fixed"되며 그러한 의미에서 "속성이 고차 속성 R에 의해 관계적으로 이뤄져 있다"고 보자는 것에 해당한다.(Barker(2009)) 즉, 자연적 속성 P는, S 및 M과 B-내적인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힘이 있는' 속성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27]

앞으로의 논의들과 관련해,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속성의 이러한 특징을 정체성-의존identity-dependence 개념을 통해 정식화해두는 것은 유용할 것이다. 타코Tahko와 로우Lowe(2020)에 따르면, 임의의 존재자 x와 y에 대해, x의 정체성이 y에 의존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정체성-의존 관계]

x의 정체성은 y에 의존한다.=df. 어떤 R이 있어서, x가 R에 의해 y와 연계돼 있다는 것이 x의 본질을 이룬다.(혹은 x의 본질의 한 부분이다.)

---

26) Barker(2009)

27)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속성들에 대한 이러한 관계주의적인relational 이해방식은, 많은 성향주의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화 방식이다. 예컨대 버드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성향주의자]들은 그들의 존재자들의 본질들 그리고, 따라서 정체성이 내재적이기보다는 관계적으로 결정되기를 원한다. [...] [성향주의]는 속성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다른 속성들과 맺고 있는 이차관계라는 입장이다. [...] [성향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이차관계란 속성의 본질 덕분에 성립하는, 속성과 그것의 발현 속성 간의 관계 — 발현 관계manifestation relation라고 부를 수 있는 — 이다."(Bird(2007: 139))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의 정체성은 소크라테스에 의존한다. 왜냐하면 *단집합의 원소임*이라는 관계 R이 있어서,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단집합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속성들에 대해서도 적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도식이다. 예를 들어, <깨지기 쉬움>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속성이라고 했을 때, <깨지기 쉬움>은 <부딪힘> 및 <깨짐>에 정체성-의존한다. 왜냐하면, 자극-발현 관계 R이 있어서, <부딪힘> 및 <깨짐>과 R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깨지기 쉬움>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깨지기 쉬움>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부딪힘>과 <깨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한 것이다.

제 3 절 질적 성향주의의 등장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을 예화한 대상들은,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S 유형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M 유형의 발현을 산출할 성향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어떤 속성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양상적으로 고정돼 있다는 것은, 결국 속성과 그것이 대상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성향(혹은 인과력) 사이에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대상이 P를 예화하고 있다는 사실과 대상이 특정한 성향(혹은 인과력) D를 갖고 있다는 사실 사이에 형이상학적으로 필연적인 연결이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성향주의자들은 이 두 사실들 간에 성립하고 있는 필연적인 연결이 원초적인 것으로서 주어져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것은 속성의 본질로부터 비롯한 필연적인 연결이며, 이러한 논제가 정확히 어떤 형이상학적 그림 하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 구별되는 속성들과 정체성-의존 관계로서 연계돼 있는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연적 속성들은 그것의 본질에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맺음이 포함돼 있기에, 자연적 속성들은 *그 자체로* 다른 속성들의 예화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대상에게 부여해줄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3)과 같은 특성, 즉, 그것의 인과적 역할이 양상적으로 고정돼 있는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power-property'라고 부르도록 하자.

[힘-속성]
임의의 자연적 속성 P에 대해, P는 힘-속성이다=df. P의 예화는 대상이 특정한 성향(혹은 인과력)을 가짐을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해준다.(혹은 P의 인과적 역할은 양상적으로 고정돼 있다.)

결국 성향주의란,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힘-속성이며 힘-속성과 그것이 대상에게 부여해주는 성향(혹은 인과력) 사이의 필연적인 연결은 속성이 관계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덕분이라고 여기는 입장인 것이다.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으로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성향주의자들은 여러 이론적 덕목들을 갖게 된다고 여겨진다. 예컨대, 턱비Tugby는 모든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여길 만한 동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모든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들은 많다. 예를 들어서, 그것은 왜 세계가 행동적인 순서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을 줄 수 있다. 답은, 대상의 속성들이 **필연적으로** 그 대상들의 힘들(혹은 만약 세계가 결정론적이지 않다면, 대상들의 경향성propensities)을 제어해준다는 것으로서, 이는 세계의 거주자들이 굉장히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실패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 성향 혹은 인과력)을 제어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과학에서 우리들의 예측적인 관습들을 위한 굳건한 토대들을 제공해주길 약속해준다. [...] 또 다른 이익은, 많은 이들이 반직관적이라고 여기는 흄주의적 우연주의의 양상적 결과인, 예를 들어, 질량과 전하의 법칙적/인과적 역할들이 뒤바뀐 다른 가능세계들이 있을 가능성을 피하도록 해준다.(Tugby(2020))

턱비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볼 주요한 이론적 이론적 동기 중 하나는, 범주주의자들이 전형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퀴디티즘에 대한 완강한 거부로부터 비롯한다. 퀴디티즘에 대한 상세한 이

해와 그것이 정말로 그럴 듯하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스미스의 R-퀴디티즘과 I-퀴디티즘 간의 구별은 우리의 논의에 있어서 유용한 구별이 될 것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퀴디티즘은 (i) 속성 개별화의 이론으로서의 I-퀴디티즘과 (ii) 가능성에 대한 조합성 이론으로서의 R-퀴디티즘으로 구별된다. I-퀴디티즘은, "가능세계들에 걸친 근본적인 속성들 간의 원초적인 [통세계적] 동일성을 수용"(Black(2000))하는 것이며, "속성들이 그것의 인과력들에 의존하지 않는 통세계적 동일성을 갖는다고 여기는"(Schroer(2010)) 입장이다. 이는 헤세이티에 의한 구체적 대상의 개별화에 상응하여 퀴디티에 의한 속성의 개별화를 받아들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 [I-]퀴디티즘은 그것들의 퀴디티들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견해이다. 퀴디티는 여러 가지 비격식적인 방식으로 특징 지어져 왔다: 그것들은 가령 본성, 내재적 측면들, 이러함suchness 혹은 속성들의 헤세이티.[28]

따라서, I-퀴디티즘에 따르면, 임의의 두 구별되는 속성 P와 Q에 대해서, P와 Q를 개별화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과 관련해 P와 Q가 서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 혹은 P는 P이고, Q는 Q이다는 사실 외에는 호소할 것이 없는 셈이다. 우리는 이러한 I-퀴디티즘을, 앞서 정체성-의존 개념과 연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가 속성의 본질을 이루지 않는, 즉 그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도 정체성-의존하지 않는 속성의 수용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겠다. 앞으로 이러한 의미의 속성을 '퀴디티'라고 부르도록 하겠다.

반면 R-퀴디티즘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세계들에서 속성들의 재조합에 그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여기는 것으로서, 루이스(2009)가 사용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퀴디티즘에 해당한다.

> 퀴디티즘은, 치환permutation이 진정으로 다른 가능성임을 말해주는 전제이다. 서로 다른 두 가능성들은 근본적인 속성들의 치환만으로도 달라질 수

28) Locke(2012)

있다. [...] 퀴디티즘을 거부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식별 불가능한 속성들, 즉 치환 혹은 속성들의 교체에 의해서만 다를 뿐인 세계들의 동일성을 수용하는 것이다.[29)]

R-퀴디티즘은 한 마디로 말해, 현실세계에서 <전하임>이 대상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성향(혹은 인과력)과 <질량임>이 대상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성향(혹은 인과력)을 정확하게 서로 치환한 가능세계 w가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예컨대 현실세계에서 <전하임>은 같은 값의 전하들은 밀어내고 다른 값의 전하들은 끌어당기는 성향을 부여해주고 있는 반면, <질량임>은 같은 값의 질량들은 끌어당기고, 다른 값의 질량들은 밀어내는 성향을 부여해주는데, 두 속성들의 이러한 인과적 역할들만 정확히 교체된 가능세계 w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w에서의 <전하임>은, 마치 <질량임>이 현실세계에서 양질량을 가진 대상들은 양질량을 가진 대상들을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줬듯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이 양전하를 띤 대상들을 (오히려)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셈이다. 버드는 이와 같은 세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w 세계)는 '중력 질량'의 이름과 '전하'의 이름들을 교체하자는 결정만 새로이 추가된 현실세계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같은 R-퀴디티즘으로의 개입이 인식론적으로 그럴 듯하지 않다고 여겼다. 이들의 주된 논증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만약 어떤 속성이 어떤 인과력을 부여해주는지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가능세계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어떤 속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2) 하지만 우리는 어떤 속성들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다.
(3) 따라서, 어떤 속성이 어떤 인과력을 부여해주느냐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는 세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블랙의 인용문이 위와 같은 논증이 기대고 있

29) Lewis(2009:209)

는 직관을 보여주고 있다.

> [R]퀴디티스트들은, 내가 논증하고자 하는, 무수히 많은 그럴 듯하지 않은 서로 구별된 가능세계들에 개입한다. 첫 번째로, 그들은 내 직관에 따르면 차이가 없는 구별이 구별된다고 말한다. [...] 우리 세계와 동일한 구조 isomorphic를 갖고 있지만, 쿼크의 색quark colour과 쿼크의 맛quark flavour이 서로 위치를 교환한 세계부터 고려해보자. 그러한 세계의 거주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세계는 우리와 똑같이 보이겠지만, 실재에 있어서는 꽤나 다르다. 그러한 것이 정말로 가능한가? 내 직관은 색 혹은 맛의 법칙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곧 바로 그러한 색 혹은 맛이라는 것이며, 두 속성들이 법칙적 역할들을 서로 교환한다는 생각은 이해하기가 힘들다.[30]

예상할 수 있다시피,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여긴다면, R-퀴디티즘에 개입할 공간은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 w 세계와 같은 치환된 세계의 가능성이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은, 각각의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어떻게 재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인데 힘-속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그러한 제약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힘-속성은 그것이 조합될 수 있는 속성들이 고정돼 있는, 양상적으로 고정된 속성들이었다.

물론 성향주의가 단순히 R-퀴디티즘으로의 개입을 하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만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에컨대, 속성 자체가 대상이 주어진 상황 하에서 어떤 인과적/법칙적 행동들을 취해야만 하는지를 결정해주기에, 대상 및 일차 자연적 속성 이외의 독특한 범주의 존재자로서의 자연법칙(대표적으로 암스트롱의 이차 보편자로서의 자연법칙)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존재론적 경제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 이는 보다 소극적인 이유이긴 하지만 주요한 동기 중 하나인 — 기존의 범주주의, 특히 암스트롱으로 대변되는 법칙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자연법칙이 정말로 일차 자연적 속성들의 규칙적인 예화 패턴을

30) Black(2000:94)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주기에 적합한 존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성향주의를 취할 간접적인 동기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이론적 동기들을 살펴보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므로, 성향주의와 질적 성향주의를 구별하는 데 치중하도록 하자.

성향주의는 비록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힘-속성임을 보임으로써 범주주의자들은 취할 수 없는 몇몇 이론적 장점들을 얻게 됐지만, 그만큼 다양한 유형의 비판들에 노출됐다. 그 중 대표적인 비판은,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배태하게 되는 듯한 무한 퇴행 혹은 순환성의 문제다. 예컨대 암스트롱(1997)은 성향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표한 바 있다.

> 모든 것이 잠재력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잠재력들을 그저 옮겨 다니는 것mere shifting around에 불과한 것일 수가 있는가? [...] 속성들에 대한 성향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별자들은 그들의 속성들을 바꾸게 될 때 그들의 가방들을 언제나 새로 싸고 있기re-packing their bags는 하지만, 잠재성으로부터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의 여행은 절대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견해에서 행한다는 것은 또 다른 잠재력에 불과하다.[31]

다소 비유적으로 표현된 암스트롱의 이러한 비판을 보다 명시적으로 정식화한 로우(2006)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퇴행 문제를 서술하고 있다.

> [성향주의]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은 그것의 정체성을 그것의 발현에 의해 갖게 된다. [...] 그런데 만약 모든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라면, 모든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의 발현들도 — 그것이 그들의 담지자의 속성들이라고 했을 때 —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발현들로부터 그것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 문제는, 어떠한 속성도 그것의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속성이 그것의 정체성을 다른 것에 빚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또 다른 것에 빚지게 되고, 등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31) Armstrong(1997:80)

그럴듯하게, 악성 무한 퇴행 혹은 악성 순환을 야기한다.[32]

이 문제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거칠게 말해 다음과 같다: 성향주의에 따르면, 자연적 속성들은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본질이 자극 유형 속성과 발현 유형 속성에 의해 성향적 혹은 관계적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런데 성향주의는 어떤 자연적 속성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성향주의에 따르면, 자극 유형 속성과 발현 유형 속성 역시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자극 유형 속성과 발현 유형 속성의 본질 역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에 의해서 성향적 혹은 관계적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모든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이 결정되지 않게 되는 듯한, 무한한 퇴행 혹은 순환으로 이어진다.

결국 성향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변증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셈이다.

(4)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을 힘-속성이라고 여길 좋은 이유가 있다. (예컨대, R-퀴디티즘의 거부, 등)
(5) 임의의 자연적 속성이 힘-속성이기 위해서는 성향적 혹은 관계적인 본질을 가져야만 한다.
(6) 그런데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 혹은 관계적인 본질을 갖고 있으면, 무한 퇴행의 문제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성향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그들에게 제기됐던 무한 퇴행의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이는 것일테다. 대표적으로 버드가 이와 같은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디퍼트Dipert의 그래프-이론을 차용하여, 성향주의에서 무한 퇴행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본고는 2장에서, 성향주의에 제기되는 퇴행 문제가 정확히 무엇이고, 버드의 답변이 정말로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답변을 보다 보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32) Lowe(2006:138)

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5)를 거부함으로써 성향주의자들이 처한 상황을 타개해낼 수 있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즉,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이지 않으면서도 힘-속성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질적 성향주의qualitative dispositionalism'라고 불리는 이 입장은 다음과 같이 정식화될 수 있다.

[질적 성향주의]
임의의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 P에 대해서, P는 비성향적/질적인 본질만을 갖지만 P의 예화가 대상이 특정한 성향(혹은 인과력)을 가짐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ground해준다.

성향주의와 질적 성향주의의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3)을 도출해내는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다. 앞서서 성향주의의 경우, 다음의 본질주의적 논제 (1)로부터

$$(1)\ \Box_P(Px \rightarrow Dx)$$

다음의 (3)을 도출해냈던 입장이었던 반면,

$$(3)\ \Box(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질적 성향주의는, '⇒'이 형이상학적 근거 관계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다음의 (4)와

$$(4)\ 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다음의 '함축 원리'로부터

[함축 원리]

임의의 사실들 [p]와 [q]에 대해서, 만약 [p] ⇒ [q]이면, □(p→q)이다.

(3)을 도출해내는 입장인 것이다.

(3) □(Px → (Sx □→ Mx)) [근거로부터의 필연성]

이와 같은 질적 성향주의는, 진리결정 관계가 형이상학적 근거관계의 일종이라고 했을 때, 진리결정 관계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달리 이해될 수도 있다: S 및 M 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맺고 않는, 즉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연적 속성 P가 그 자체로 반사실 조건문 'Sx □→ Mx'의 진리결정자다.

대표적으로 턱비(2012, 2020)와 야콥스(2011)가 이와 같은 질적 성향주의를 취하고 있다. 예컨대, 턱비는 질적 성향주의를 다음과 같이 정식화하면서

> 힘들의 형이상학적 근거 이론The Grounding Theory of powers: 모든 속성들과 대상의 모든 힘들에 대해서, 대상의 각 힘은 대상의 속성 혹은 속성들에 충분하게 근거돼fully grounded 있다. [...] P가 임의의 자연적 속성이라고 할 때, 필연적으로, 만약 x가 P이면, x가 P인 **덕분에in virtue of,** 만약 x가 F였더라면, x는 G했었을 것이다.(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했더라면)[33]

"우리가 [질적 성향주의]를 수용한다면, 우리는 속성들이 비성향적인 본질을 가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질적 성향주의자이지만 근거 관계보다는 진리결정 관계의 용어들로서 이론을 꾸리고 있는 야콥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질적이라는 것은 두꺼운 퀴디티와 동일하다. [...] 어떤 속성이 힘이 있다는

33) Tugby(2020), Tugby(2012)

것은, 그 속성을 가진 대상들이 그들이 파악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하에서 무엇을 할지를 기술해주고 있는 반사실 조건문들의 진리결정자이기에 그 본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질적이라는 것은 곧 힘이 있다는 것이다(Jacobs (2011:90))

결국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앞서 스미스의 구분법에 따르면, I-퀴디티즘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자연적 속성들은 자기 스스로 개별화되는, 원초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것들이며, 그렇기에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속성들과 관련한 사실들도 속성의 본질에 포함돼 있지 않다. 만약에 이와 같은 질적 성향주의가 정말로 그럴듯하다면, 이들은 성향주의자들이 자연적 속성을 힘-속성이라고 여길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론적 장점들을 모두 취하면서도 무한 퇴행의 문제에는 노출되지 않을 것이다. 즉, R-퀴디티즘은 거부할 수 있으면서도 퇴행의 문제에는 시달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무한 퇴행의 문제는 결국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다고 여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데,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비성향적/비관계적인 본질, 즉 '질적인' 본질만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무엇을 포착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고가 성향주의와 질적 성향주의의 구분으로부터 어떤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지를 말함으로써 1장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만약 단순히 성향주의자들이 노출되는 무한 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처 방안으로서만 이론이 구축된 것이라면, 설령 자연적 속성들이 힘-속성임이, 즉 그것들의 인과적 역할이 양상적으로 고정돼 있음을 도출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즉흥적으로 마련된 이론이라고 여겨질 여지가 남게 될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질적 성향주의은 그 나름의 독립적인 이론적 동기가 있는데 바로 <고통스러움>과 같은 감각질 속성들에 대한 고려로부터 비롯한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보기에 <고통스러움>과 같은 현상적phenomenal 속성들은 (i) 그 본질 혹은 정체성 자체는 성향적/관계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속성들이지만 (ii)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속성들을 예화한 대상들이

갖게 되는 행동적인 성향들, 혹은 대상들이 실질적으로 외부세계에 드러내고 보이고 있는 행동들의 유형 자체는 고정돼 있는 속성들이다. 즉, <고통스러움>은 그 어떤 속성들에 대해서도 정체성-의존하지 않는 퀴디티로서 여겨져야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현상적, 사적인 경험들이 설명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에게 특정한 성향 D를 *필연적으로는* 부여해주고 있는 자연적 속성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턱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고통을 느낌, 혹은 가려움을 느낌과 같은 현상적인 속성들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 고통의 질적인 느낌 덕분에 대상이 갖게 되는 성향, 즉 고통을 멈추기 위해서 단계들을 밟아 나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지 않으면서, 진정하고 강렬한 고통을 느낄 수가 있는가? 가려움의 질적인 느낌 덕분에 대상이 갖게 되는 성향, 즉 가려운 부위를 긁으려는 성향을 갖지 않으면서, 가려움을 느낄 수가 있는가?"(Tugby(2012:730))

본고는 성향주의와 질적 성향주의 간의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들 간의 이론적 우열을 평가할 때 도움이 될 두 가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성향주의자들에게도 무한 퇴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 질적 성향주의는 퇴행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성향주의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향주의자들은 추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지만,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추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내기 힘들어 보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적으로 보여 질 수 있다면, 성향주의는 최소한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질적 성향주의에 대해 이론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목표가 모두 보여진다면, 간접적으로나마, 질적 성향주의가 아닌 성향주의를 취할 동기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성향주의와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

제 1 절 로우의 문제에 대한 버드의 해석과 답변

성향주의가 악성적인 퇴행 혹은 순환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는 우려는 이미 여러 논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방식들로 제기돼 왔다. (Campbell (1976:93), Swinburne(1980:316-19), Robinson(1982:114), Martin(1997), Armstrong(1997:80), Lowe(2006:138))

그동안 성향주의를 향해 제기돼 왔던 퇴행 문제들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낸 버드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a) 인식론적 퇴행 문제 (b) 현실성/실재성 퇴행 문제(혹은 '너무 적은 현실성too little actuality' 문제) (c) 정체성 퇴행 혹은 순환의 문제로 나뉜다.(Bird(2007)) 본고는 이 중 (c)의 문제, 즉, 모든 자연적 속성들을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들로서 여기게 되면, 속성들의 정체성이 형이상학적으로 결정되지 않게 된다는 문제 및 그에 대한 버드의 답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c)의 문제가 (a)와 (b)의 문제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와 (b)의 문제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인식론적 퇴행 문제

인식론적 퇴행 문제는 성향주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스윈번의 의구심으로서 대변된다.

> 우리는 대상이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오직 변화들(즉, 힘들이 산출하고자 하는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에만 알 수 있다. [...]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속성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속성들이 인과력들에 기여하기 위한 잠재력들에 불과하

다면, 우리는 악성적인 무한한 퇴행을 갖게 될 것이다.[34]

위 인용문에서 스윈번의 요지는, 만약 성향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들이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스윈번에 따르면, F가 본질적으로 성향적이라고 했을 때, F가 어떤 속성인지에 대한 앎은 오직 그것과 연계돼 있는 발현 속성 G가 어떤 속성인지에 대한 앎이 선행돼야만 주어질 수 있다. 그런데 성향주의에 따르면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이기에, G 역시 본질적으로 성향적이다. 그렇다면, 다시 G가 어떤 속성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G와 연계된 발현 속성 H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 등등 이러한 퇴행의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문제는, 아무리 이러한 퇴행이 무한하게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발현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들인 한, 최초에 우리가 얻고자 했던 F에 대한 앎을 끝내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버드는 스윈번의 이러한 문제제기가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답한다. 왜냐하면 스윈번의 퇴행 문제는 최소한 어떤 발현 속성들은 그 자체로 인지자의 심적 상태 혹은 지식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들일 수 있다는 점만 받아들이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퇴행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인지자 S가 어떤 대상이 F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F와 연계된 발현 속성 G가 어떤 속성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해보자. 그런데 이때, G와 연계된 발현 속성 J가 그 자체로 S의 심적 상태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해보자. 이러한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령, 색깔에 대한 성향적인 이해에 따르면, 색에 대한 경험을 한다는 것은 곧 색깔 속성과 연계된 발현 속성이 대상의 심적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가령, G와 연계된 발현 속성 J가 감각질, 현상적 경험, 믿음 상태 등과 같은 심적 속성에 해당하는 경우들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심적 상태는 심적 속성의 예화로서 이해된다.

---

34) Swinburne(1980: 316)

이처럼 J 속성을 통해 구성된 심적 상태가 특정한 인지적 상태에 해당한다면, 더 이상의 인식론적 퇴행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일단 인지자가 J 상태에 들어선 이상, J에 선행했던 속성들(최초의 F 속성을 포함해서)에 대한 앎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서, J 상태에 있는 인지자에게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J 상태에 있다는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는 요건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J와 연계된 발현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얻을 필요도 없어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내가 X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X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인지자 S는 자신이 J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J와 연계된 발현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야할 필요도 없다.

실재성/현실성 퇴행 문제

실재성/현실성 퇴행 문제는, 암스트롱 및 하일의 다음과 같은 의구심들로서 대변된다.

> 모든 것이 잠재력이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러한 잠재력들을 그저 옮겨 다니는 것mere shifting around에 불과한 것일 수가 있는가? [...] 이는 매우 반직관적인 견해인 것처럼 보인다. [...] 속성들에 대한 성향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개별자들은 그들의 속성들을 바꾸게 될 때 가방을 언제나 새로 싸고 있기는 하지만re-packing their bags, 잠재성으로부터 (실제로) 행하는 것으로의 여행은 절대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견해에서 '행한다act'는 것은 또 다른 잠재력에 불과하다.[35]

> 첫 번째 도미노에 있는 모든 것은 두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힘이고, 두 번째 도미노에 있는 모든 것은 넘어질 수 있는 힘과 세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라고 상상해보자. 만약 도미노에 있는 모든 것이 인접한 도미노를 넘어뜨리거나 그것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는 힘 뿐이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36]

35) Armstrong(1997:80)
36) Heil(2003:98)

이들의 요지는,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속성들은 그것과 연계된 인과적 발현들이 현실적으로 산출돼야만 실재성/현실성을 얻을 수 있는데, 만약 발현 속성마저도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순수한 힘'에 불과하다면, 모든 속성들이 그것의 실재성/현실성이 주어지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세계는 오직 '잠재력'들만 있는 곳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깨지기 쉽다는 유리컵의 성향은 실제로 유리컵이 깨지는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현실화된다. 그렇다면, 오직 현실적인 것들만이 실재하는 것들이라고 했을 때, 세계에 실재하고 있는 것은 깨지기 쉽다는 유리컵의 성향이 아니라 구체적 시공간에 예화되는 발현 속성 <깨짐>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발현 속성마저도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현실화되는 바가 없고 그래서 실제로 '행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들을 빌미로, 암스트롱과 하일은 결국 성향적인 본질을 갖지 않는 속성, 즉 '무조건적'으로 현실화돼 있을 뿐인 범주적인 속성들이 자연세계에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어야 됨을 종용하고 있는 셈이다.

암스트롱과 하일의 의구심과 관련해 한 가지 생각해 볼만한 지점은, 속성의 '예화'와 성향의 '발현' 간의 구분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고려해보자.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은 오직 자극 조건에 대해서 조건부적으로만 예화될 수 있는 속성들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절한 자극에 반응하여 발현될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범주적인 속성들은 무조건적으로 예화돼 있다. 왜냐하면 범주적인 속성들은 특정한 자극에 반응하여 발현하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속성이 예화된다는 것과 성향이 발현된다는 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범주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주적인 속성들만큼이나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 역시 '범주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성향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 특정한 자극이 주어졌을 때에만 조건부적으로 예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현실적으로 예화하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들 가운데에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 있

다고 말하는 것일 뿐이다. '조건부적'으로 예화되는 것은 오직 성향의 발현들 뿐이며, 속성 자체가 아니다.

버드는 실재성/현실성 퇴행 문제와 관련해, 이것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 진정한 속성들이기에는 충분한 실재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 그저 그것을 (미리) 가정하고 있는" 반론들이라고 대응한다. 예컨대, 버드는 성향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적 속성들이 범주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보다 덜 실재적이라고 여길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한다. 만약 범주주의자들 말대로 자연적 속성들이 오직 사소한 의미의 본질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들 속성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 특성들이 다음의 세 가지라고 해보자: (i)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수적으로 구별됨 (ii) 특정한 사례들을 가질 수 있는 보편자임 (iii) n항 보편자임. 만약 그렇다면, 버드에 따르면, 성향주의자들은 오히려 범주주의자들보다 자연적 속성들에게 더 풍성한 '존재론적 내용ontological content'을 부여하고자 하는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향주의자들은 자연적 속성들의 본질에 (i), (ii), (iii) 뿐만 아니라 대상에게 특정한 성향 혹은 인과력을 부여해준다는 특성까지 포함돼 있다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성향적인 본질'까지' 갖고 있는 성향주의자들의 속성들이 범주주의자들의 속성들보다 그 실재성/현실성에 있어서 덜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버드의 결론이다.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

앞서의 두 퇴행 문제가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버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돼 온 바이다. 예를 들어, 야콥스는 암스트롱의 문제 제기에 대해 "그것은 논점을 선취하고 있으며 [...] 버드는 성공적으로 해당 반론이 잘못됐음을 보였다."(Jacobs(2007:137)와 같이 평가하고 있으며, 바커 역시 "'가방을 언제나 새로 싸고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는 반론은 [...] 혼동에 기반한 것이며 [...] 실패한다."와 같이 평가한다.

이와 같은 평가가 정말로 앞선 두 문제들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인지, 성향주의자들의 대응이 정말로 적합한지를 논의하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버드를 비롯한 다수의 성향주의자들이 다음의 인용문으로서 대변되는 로우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성향주의]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은 그것의 정체성을 그것의 발현에 의해 갖게 된다. [...] 그런데 만약 모든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이라면, 모든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의 발현들도 — 그것이 그들의 담지자의 속성들이라고 했을 때 —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들의 발현들로부터 그것의 정체성을 갖게 된다. [...] 문제는, 어떠한 속성도 그것의 정체성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각 속성이 그것의 정체성을 다른 것에 빚지게 되는데, 그것은 다시 또 다른 것에 빚지게 되고, ... 등등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그럴듯하게, 악성적인 무한 퇴행 혹은 악성적인 순환을 야기하게 된다.[37]

성향주의를 향한 로우의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앞으로 '로우의 문제'라고 해보자. 버드는 로우의 문제가, 만약 성향주의자들의 주장대로 모든 자연적 속성들을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게 되면, 모든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이 오직 불확정적으로만 결정되게 됨을 보이고 있는 문제라고 해석한다. 즉, 만약 모든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이 원초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관계적으로만 결정되는 것이라면, 매우 그럴 듯하게, 악성적인 무한 퇴행 혹은 악성적인 (형이상학적 설명의) 순환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에는 모든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이 확정적으로 결정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 로우의 논증과 같은 것을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의 정체성이 불확정적

37) Lowe(2006:138)

> 이게 됨을 보이는 것으로써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 속성의 본질, 즉, 만약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이라면, 그것의 성향적인 특성이 속성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기를 우리는 기대한다. [성향주의]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의 본질은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 [성향주의]를 취하면, 다른 모든 속성들 역시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속성들의 정체성이 그것이 다른 속성들과 맺고 있는 관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므로 무한하게 많은 속성들이 있거나 혹은 정체성들의 관계들에 있어서 순환성이 발생하게 된다. [...] 두 선언지 모두 [성향주의]에게 있어서 문제적인 것처럼 보인다. [...]
>
> 두 번째 선언지를 취했을 때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속성의 정체성은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바로 그 다른 속성들 역시 그것들의 정체성이 또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관계들의 집합은 어느 지점에선가 다시금 최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바로 그 속성을 포함하도록 되돌아오는 것이다. [최초에 우리가 시작했던] 이 속성의 정체성은 관계들의 집합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으로서 여겨졌던 것이다. 그런데 이 관계들의 집합의 본성은 그것의 관계항들의 정체성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관계항들은 가정 상 그것의 정체성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던not yet settled 것들이다. [...] 나는 이것이 로우와 같은 비평가들이 성향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염두에 두고 있었던 종류의 퇴행 혹은 순환성에서, 순환성의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38]

버드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대로 로우의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구성해보도록 하자. 자연적 속성들이 무한하게 있는 경우와 유한하게 있는 경우를 서로 구분해서 생각해보자.

먼저, 자연적 속성들이 무한하게 있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성향주의에 따르면, P1의 정체성은 P2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P2의 정체성은 P3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며, 등등... 속성의 정체성 결정 과정이 무한하게 반복될 것이다. 이때, 임의의 속성 P와 Q에 대해, P의 정체성이 Q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을 때, Q의 정체성이 형이상학적으로 '이

38) Bird(2007:524)

미’ 결정돼 있을 경우 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 P의 정체성이 확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고 하자.(“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속성들의 정체성은, 오직 그것의 본질이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속성들이 확정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만 확정적이다.”(Bird(2007:524))) 만약 그렇다면, 정체성의 결정 과정이 무한하게 반복되더라도, 최초 P1의 정체성은 확정적으로 주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P1의 정체성은 오직 P2의 정체성이 결정돼 있어야만 확정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는데, 가정상 P2의 정체성은 P3와의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P3의 정체성이 형이상학적으로 결정돼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P3의 정체성은 형이상학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P3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기로 돼 있는 P4의 정체성 역시 확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P5, P6, P7, ... 등등 아무리 속성들의 수를 늘리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초에 P1이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으로서 상정됐던 존재자들의 연쇄가, 무한한 퇴행의 과정 속에서 그것에게 본디 기대됐던 형이상학적 설명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연적 속성들이 유한하게만 있는 경우를 고려해보자. 가령, P1, P2, P3의 세 가지 자연적 속성들만 있는 임의적 가능세계 w가 있다고 하자. 그리고 성향주의에 의거해서, P1의 정체성은 P2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P2의 정체성은 P3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P3의 정체성은 P1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자. 버드는, 이 경우에도 여전히 최초 P1의 정체성은 불확정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기에 문제적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P1의 정체성이 확정적으로 주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P2와 P3의 정체성이 모두 형이상학적으로 결정돼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P3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것으로 상정됐던 것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P1이기 때문이다. 가정상, 그 정체성이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P1과의 관계를 통해서 P3의 정체성이 결정될 수는 없다.

한 가지 분명하게 언급해두고 갈만한 점은, 성향주의자들과는 달리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로우의 문제로부터 사소하게 자유로운 견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로우의 문제가 발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조건

은, 자연적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 즉,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논제의 수용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성향주의자들의 핵심 논제였다. 반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각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 자체는 철저하게 비관계적/원초적으로 결정되며, 따라서 속성들의 정체성 결정 과정이 퇴행된다거나 순환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는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 제기될 수가 없다. 버드에 따르면, 이처럼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 속성의 정체성이 그저 원초적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여기는 입장들(가령, 범주주의)이 성향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주요한 이론적 장점들 중 하나다. (Bird(2007:526))

다시 돌아와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로우의 문제를 이해한 버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우의 문제가 성향주의의 두 핵심 논제, 즉, (i)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으며 (ii)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들에 의해서 속성의 정체성이 결정된다가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한다. 버드는 이 두 논제들이 서로 얼마든지 양립가능함을 보이기 위해, 다음의 (S)를 로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사항desiderata로서 설정한다.

> (S) 임의의 존재자들의 집합 e의 각 원소들 간의 수적 동일성 및 수적 구별성은, e의 원소들에 대한 어떤 관계(혹은 관계들의 집합 {Ri})의 예화들에 수반한다.

(S)를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설정한 버드에 따르면, 자연적 속성들의 성향적인 본질 덕분에 성립하게 되는 (이차) 자극-발현 관계들을 SR 관계들stimulus-response relation이라고 했을 때, 각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은 SR 관계들의 집합만으로도 충분하게 결정될 수 있다. 버드는 이것이 다음의 (S*)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다고 말한다.

> (S*) 그래프의 꼭지점들 간의 동일성 및 구별성은 그래프의 구조에

수반한다.

즉,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S*)이 참일 수가 있는데, 이를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적용하면 성향주의자들도 (S)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로우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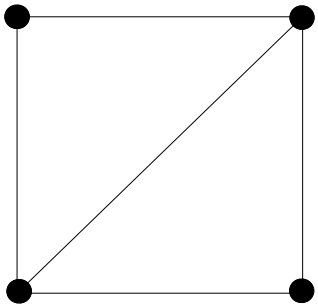
(S*)을 바탕으로 한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n개의 꼭짓점들vertices, points과 그 꼭짓점들을 이어주고 있는 선들arcs, edge relations로 이뤄져 있는 수학적 구조(그래프)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주어진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꼭짓점들이 일차 자연적 속성들을 표상해주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고, 각 꼭짓점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선들이 SR 관계들, 즉, 자극-발현 관계들을 표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수학적 구조가 성향주의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를 표상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향주의에 따르면, 각각의 자연적 속성들은 SR 관계라는 이차 관계들에 의해서 서로 내적으로 연결된, 전체론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SR 관계들의 망을, 그래프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래프들을 통해 표상해보자는 것이 버드의 일차적인 제안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버드는 로우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다고 응수한다: 주어진 수학적 구조(로서 표상되는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각각의 꼭짓점들이 *전체 구조상에서* 고유한 위치unique position를 점할 수 있도록 그래프의 구조를 적절하게 비대칭적인 것으로서 설정하게 되면, 각각의 꼭짓점들은 고유하게 식별identified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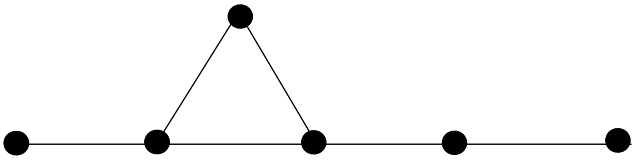
예를 들어, 버드에 따르면, 다음의 (그림 1)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S*)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래프 구조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그림 1)의 그래프를 180도 회전할 경우, 꼭짓점들 자체는 회전 전후로 각각 서로 다른 꼭짓점들로 사상mapping되겠지만, 구조 자체는 회전 전후로 변함없이 보존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버드에 따르면, “이 그래프의 구조는 각 꼭짓

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프 이론에 따르면, (그림 1)의 그래프와 같이, 전체 그래프의 구조는 보존되지만 최소한 어떤 꼭짓점들은 (회전 이후에) 다른 꼭짓점들로 사상되는 사상방식을 ‘사소하지 않은 자기동형non-trivial automorphism’이라고 한다. 반면, 각 꼭짓점들이 다시금 자기 자신에게 사상되는 방식을 ‘사소한’ 자기동형trivial automorphism이라고 한다.

(그림 1)과 같은 그래프의 구조는 각 꼭지점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에, 버드에 따르면,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퇴행/순환성 반론으로부터 성향주의를 구제하려면 사소하지 않은 자기 동형이 *아닌* 그래프 구조를 찾아야만 한다. 이러한 그래프를 ‘비대칭적asymmetric’인 그래프라고 하며, 버드는 (그림 2)와 같은 그래프 구조를 그 전형으로 삼는다. 즉, (그림 2)의 그래프는 ‘사소하지 않은 자기 동형’이 아닌 그래프 구조인 것이다.



(그림 1)



(그림 2)

버드는 (그림 2)와 같은 비대칭적인 구조를 갖는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림 2)와 같은 그래프는] 꼭짓점들을 교체하면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는 달리 말해, 구조가 꼭짓점들의 정체성을 결정해준다는 것이다. 즉, 구조 자체가 각 꼭짓점들을 다른 모든 꼭짓점들과 구별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꼭짓점들의 동일성은 모서리 관계의 예화들의 집합에 수반한다.”(Bird(2007:528))

버드의 말대로, (그림 2)와 같은 비대칭적인 그래프는 각 꼭짓점들에 대해서 고정된 동일성 조건들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각 꼭짓점들을 그것들의 (최초) 모서리 관계들을 유지하면서 다른 꼭짓점들로 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각 꼭짓점들은 해당 그래프 상에서 고유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을 것이다. 즉, 하나의 그리고 오직 유일하게 하나의 구조적인 기술만이 각 꼭짓점들에 대해서 적용이 되며, 이러한 기술들은 각 꼭지점들마다 서로 다를 것이다.

결국 버드는 로우의 문제를 '자연적 속성들의 수적 동일성 및 구별성이 그들이 들어서고 있는 SR 관계들의 패턴에 수반할 수 있는가?'로서 이해하고, 이에 대한 답으로서, 꼭짓점들의 수적 동일성 및 구별성이 그래프의 구조에 수반할 수 있듯, 자연적 속성들의 수적 동일성 및 구별성 역시 비대칭적인 SR 관계들의 패턴에 수반할 수 있음을 보인 셈이다.

버드의 이와 같은 전체론적holistic, 구조주의적structuralistic 접근법은, 인과적/법칙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서로 내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여기는 성향주의의 정신과 잘 들어맞는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성향주의자 중 한 명인 멈포드Mumford 역시, 다음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버드와 같은 접근법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나는 세계에 대한 전체론적인 견해가, 그 대안인 구별되는 것들에 의한 형이상학보다 매력적임을 받아들인다. [...] 속성들은 다른 것, 즉 그것의 (인과적) 결과들 위한 것으로서 여겨져야 함이 그럴 듯하다. 속성들은 힘이 있으며, 개별자들은 그것들을 예화할 때 힘이 있을 수가 있다. **세계에 있는 진정한 속성들은 따라서 상호 연결된 망을 형성해야만 한다**: 그 어떠한 속성들도 홀로 혹은 고립돼 있지 않은 체계 말이다. [...] 만약 어떤 속성이 망의 한 부분이 아니라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한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속성들이 무엇이라는 것에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속성이 무엇인가?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그것의 정체성을 고정해줄 수 있는가?[39]

39) Mumford(2004:183)

제 2 절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은 성공적인가?

그런데 버드의 이러한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정말로 로우가 최초에 지적하고자 했던 우려를 종식시켜줬을까? 로우는 버드의 답변이 제시된 이후 얼마 있지 않아 버드와 같은 유형의 구조주의적 존재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한다.(Lowe(2012:215))

> 내가 [성향주의]의 교리에 대해 제기했던 비판들은, 특정한 종kind의 *모든* 존재자들이 *상호 개별화mutually individuating*한다고 여기는, 어떠한 유형의 구조주의적 존재론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는, 같은 종의 서로 다른 존재자들이 서로의 유일한 개별해주는 존재자individuator라고 여기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헬륨 원자핵의 궤도를 돌고 있는 두 전자들이 [...] 각자 서로를 개별화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제안을 했다고 상상해보자. [...] 내가 보기엔, 이 제안에 대한 분명하고 올바른 반응은, 이것이 악성적으로 순환적이기 때문에 헛된 제안이라는 것이다. 동일한 종의 서로 다른 두 존재자들이 모두 서로를 개별화해줄 수는 없다. [...] '구조주의' 존재론자들이 열망하는 것처럼, 존재론의 주어진 체계 내의 모든 존재자들이 해당 체계 안의 다른 존재자들에 의해서 전적으로 개별화되는 것은 단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어떠한 정합적인 존재론의 체계에서도, 체계 내의 다른 존재자들이 적절하게 개별화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존재자들은 자기 스스로 개별화self-individuating하는 것들이어야 한다.

결국 로우에 따르면, K종에 속하는 존재자들은 오직 K종에 속하는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개별화될 수는 없다. 즉, K종 내에는 그것의 정체성이 원초적으로 주어져 있는, '스스로 개별화'할 수 있는 존재자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성향주의가 하나의 정합적인 존재론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비관계적/비성향적인 본질만을 갖고 있는 속성의 존재를 수용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로우의 이와 같은 생각은 기본적으로 자연수들 및 집합들이 개별화되는 방식에 대한 유비적인 고려로부터 비롯한다. 예를 들어서, 자연수들이 어떻게 개별화될 수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도록 하자. 0을 제외한 각각의 자연수들은 그것들의 선행자predecessor 수에 그 정체성을 의존하며, 그렇기에 선행자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개별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0을 제외한 자연수들은 *순전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자연수들에 의해서 개별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들의 개별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수들에 의해서 개별화되지 않는 하나의 수[=0]가 자연수들의 연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 때문에, 자연수들의 연쇄 속의 다른 수들이 그것들의 선행자 수들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 있는 것이며 오직 그 때문에 [0을 제외한 자연수들이] *전적으로* 연쇄들 안의 다른 수들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Lowe(2012:229)) 결국, 로우에 따르면, '그 어떠한 선행자 수도 갖고 있지 않은 유일한 자연수'라는 것이 0의 본질이며, 그리고 0이 바로 그러한 본질을 갖는 자연수인 덕분에 0을 제외한 자연수들이 전적으로 그것들의 선행자 수들에 의해서 개별화될 수 있는 것이다.

K종에 속하는 존재자들은 오직 K종에 속하는 다른 존재자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개별화될 수 없다는 것을 '로우의 원리'라고 해보자. 만약 로우의 원리가 참이라면, 성향주의는 정합적인 방식으로 자연적 속성들을 개별화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자연적 속성들도 스스로 개별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성향주의의 핵심 논제였기 때문이다. 0 혹은 공집합과 같은, 원초적 정체성을 지닌 속성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자연적 속성들을 개별화해나가기 시작한다면, 애초에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제시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로우의 원리는 분명 직관적인 호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암묵적으로 여러 철학 분야에서 가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심적 속성과 물리적 속성이 서로 다른 종에 속한다고 했을 때, 기능주의자들은 <고통스러움>과 같은 심적 속성의 정체성은 그것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심적 속성들에 의해서만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여기기보다는, 심적 속성들만으로 이뤄진 인과적 구조를 벗어난, 다른 비-심적 속성들(가령, 조직손상 및 얼굴을 찌푸림)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여긴다.

하지만, 로우의 원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자명한 이유가 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성향주의자들이 로우의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연적 속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해 나갈수는 없는 것일까? 버드가 제시한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어떤 결함을 갖고 있기에 로우는 버드의 답변을 분명 인지했음에도 여전히 구조주의적 존재론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일까?

비록 로우 본인은 버드의 답변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에서, 최초의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여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 않다. 하지만 로우가 내비친 일련의 생각들을 바탕으로 로우의 원리와 같은 직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검토해보도록 하자.

우선 로우는 임의의 존재자 x에 대해서, x의 동일성 기준criteria of identity을 제시하는 작업과 x의 개별화 원리principle of individuation을 제시하는 작업을 개념적으로 분명히 구별할 것을 요구한다.

'K'가 x가 속해 있는 종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K종의 존재자들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준다는 것은, K종에 속한 존재자들 간의 수적 동일성 및 수적 구별성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정보성 있고 사소하지 않은 방식으로 명세해줄 수 있는 원리를 준다는 것이다. 로우에 따르면, 이러한 동일성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면서 제시될 수 있다.

[동일성 기준]
만약 x와 y가 K 종의 존재자들이라면, x=y iff x와 y가 R 관계를 맺고 있다.(혹은 x와 y가 C(Φ) 조건을 만족시킨다.)

'동일성 없는 존재자는 없다No entities without identity.'는 콰인의 격언으로부터 비롯했다고 할 수 있는 동일성 기준은, K종에 속하는 존재자들의 수를 셀 수 있는counting 방법을 제공해주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R은 x와 y 간에 성립하는 (수적 동일성 관계를 제외한) 동치관계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데이빗슨이 제시한 사건 동일성 기준이 위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데이빗슨에 따르면, 만약 e와 f가 개별 사건들이라면, e=f iff e와 f가 같은 원인들과 결과들을 갖는다.

반면, x의 개별화 원리는, x와 y 간의 *동일성 관계* — 동일성 기호 '='에 의해 표상되는 —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고려해보고 있는 동일성 기준과는 달리, x의 정체성identity과 관련하는 것이다. 즉, x의 개별화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x를 인식적인 의미에서 성공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x가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1장에서 정의된 정체성-의존 관계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x가 y에 정체성-의존한다면, x와 y 간에 성립하는 어떤 R이 있어서, y와 R을 맺고 있다는 것이 x가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준다.

x의 동일성 기준을 주는 작업과 x의 개별화 원리를 주는 작업이 이처럼 개념적으로 구별될 수 있다고 했을 때, x에 대한 개별화 원리가 주어지면 x에 대한 동일성 기준 역시 주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역이 마찬가지로 성립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예컨대, x의 무엇임인지가, 즉 x의 개별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x를 다른 것들과 수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일한 종의 서로 구별되는 두 구체적 대상들은 정확히 동일한 하나의 시공간 구역을 점유할 수 없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보자. 이 원리는 물리적 대상들을 서로 다른 시공간 궤적을 따라서 '셀 수' 있도록 해주는, '동일성 기준'으로서는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개별화의 원리일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왜냐하면 구체적 대상들이 어떤 시공간 구역을 점유하고 있는지가 대상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특정한 시공간 구역을 점유함'과 같은 것이 x의 개별화 원리이고, 따라서 x가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었다면, x는 본질적으로, 따라서 필연적으로, 특정한 시공간 구역을 점유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매우 그럴 듯하게, 구체적 대상들은 얼마든지 그것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공간

구역과는 다른 구역을 점유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특정한 시공간 구역의 점유'가 구체적 대상들의 우연적인 특성들에 불과함을 감안했을 때, 이는 구체적 대상들의 개별화 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동일성 기준과 개별화 원리 간의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감안했을 때, 로우의 문제에 대한 버드의 답변은 이제 어떤 식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로우의 견지에서 봤을 때, 버드의 이론은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동일성 기준은 적절하게 제시해줄 수 있지만,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적합한 개별화 원리를 제시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악성적으로 순환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버드의 답변이 자연적 속성들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사소하지 않고 정보성 있게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컨대, 그의 답변을 고려했을 때, 자연적 속성들의 동일성 기준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버드의 동일성 기준]

임의의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 P와 Q에 대해, P = Q iff P와 Q가 이차 관계들로 이뤄진 구조상에서 동일한 관계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40)]

---

40) 이와 같은 유형의 동일성 기준을 이용해서, 성향주의자들이 자연적 속성들 간의 수적인 구별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은 로우뿐만 아니라 기타 성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철학자들 역시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다. 예컨대, 로우와 마찬가지로, 버드식의 접근법이 동일성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만 개별화 원리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잉쏘선Ingthorsson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론적' 접근법이, 정체성 퇴행 문제를 발생시켰던 것과는 다른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전체론적 접근법은, [...] 전체에서의 고유한 위치 덕분에 각 존재자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 해결책은 수적 동일성에 대한 직관을 취해서, 사례들을 수적으로 개별화하는 방식은 제공해주고 있지만, [...] 존재자들의 개별 본질과 관련한 걱정으로서 정식화됐던 최초의 정체성 퇴행에 대한 답을 주고 있지는 않다.(Ingthorsson(2012))

동일성 기준이, 최소한 로우에 따르면, P 혹은 Q가 무엇인지를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들을 식별하기 위한 혹은 그 수를 세기 위한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와 같은 속성 동일성 기준이 서로 다른 속성들을 식별해주기 위한 이론적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버드가 원했던 귀결이기도 하다. 가령, 현실세계의 자연적 속성들이 (그림 2)와 같은 방식으로 비대칭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을 때, 만약 P와 Q가 해당 구조 내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P와 Q가 서로 다른 자연적 속성들임을 식별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동일성 기준과 개별화 원리 간의 차이가 드러난 지금, 우리는 버드가 단순히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속성들에 대한 동일성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그래프 이론적 답변을 제시한 것이 아님을 상기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버드가 로우의 문제를 해석할 때, 그는 분명 속성의 개별화 원리, 즉 속성의 정체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성향주의가 문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만약, 버드가 최초에 로우의 문제를 단순히 서로 다른 속성들을 '식별identify'할 수 있는 방법을 성향주의자들에게 제시하라는 문제로서 이해했다면, 그것은 버드가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함의하게 될 터인데, 이는 그럴 듯하지도, 그리고 버드 본인에게도 부당한 처사일 것이기에, 우리는 버드가 속성들의 개별화 원리를 제시하고자 시도했다고 이해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버드의 구조주의적 답변이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성향적이라고 했을 때, 속성들에 대한 개별화 원리를 적합하게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도록 하자.

우선, P의 개별화 원리가 C(ϕ)이라고 했을 때, C(ϕ)은 두 가지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C(ϕ)은 P의 통세계적 동일성 기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C(Φ)가 P의 개별화 원리라는 것은 C(Φ)가 P가 무엇인지를, 즉, P의 정체성을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것이며 그렇기에 P는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C(Φ)를 만족시켜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P가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C(ϕ)를 만족시켜

야 한다는 것을 C(ϕ)가 P의 개별화 원리이기 위한 '통세계적 조건'이라고 하자.

둘째, P의 개별화 원리로서의 C(ϕ)는 순환적이어서는 안 된다. 즉, P에 대한 언급이 그것의 개별화 조건인 C(ϕ)에서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다시금 등장해서는 안 된다. 이를 C(ϕ)가 P의 개별화 원리이기 위한 '비순환성 조건'이라고 하자. 비순환성 조건이 성립해야만 하는 이유는, C(ϕ)가 P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철학자들이 형이상학적 설명 관계가 비재귀적이며, 비대칭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udi(2012)) 만약 C(ϕ)가 명시되는 과정에서 P에 대한 언급이 명시적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P의 정체성이 전제presupposed돼 있어야만 상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 등장하게 된다면, P의 정체성은 P 자신에 의해서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셈이 될 것이며 이러한 방식의 형이상학적 설명은 순환적이고 정보성이 없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제, 버드가 위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P에 대한 개별화 원리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예컨대, 현실세계(w1)의 각 자연적 속성들이 G1이라는 비대칭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P가 이러한 G1 상에서 특정한 관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자. 최소한 w1 내에서는, '버드의 동일성 기준'에 의거해, P가 기타 속성들과 수적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버드가 가령, "P는 G1상에서의 관계적 위치에 의해서 개별화되는 속성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P에 대한 개별화 원리를 준다면, 통세계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별화 원리를 준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컨대, w2 세계에서의 자연적 속성들은 현실세계와 전혀 다른 방식의 내적 연결 망(=G2)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w1에서의 P가 통세계적 동일성을 유지하며 w2 세계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G1 상에서의 관계적 위치'는 통세계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는 개별화 원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w2에서의 P는 가정 상, w1에서의 바로 그 P임에도 불구하고, G2 상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개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드가 만약 '구조상에서의 관계적 위치'와 같은 것으로서 P의 개별화 원리를 제시하길 원한다면, 그는 P가 그것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동일한 하나의 구조에만 속해 있을 수밖에 없음을 보장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특히나, 구조를 적절하게 비대칭적으로 설정하면 각 속성들이 고유하게 식별될 수 있다고 여겼던 버드의 견지에서는 더욱 중요한 사안인데, 왜냐하면 예컨대 w2의 구조 G2는 G1과 달리 비대칭적인 구조가 아니라 (그림1)과 같은 대칭적인 구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w2에서의 P는 고유하게 식별조차 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버드에게 필요한 것은, P가 존재하는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P가 동일한 하나의 비대칭적 구조에 속해 있으며 그러한 구조상에서 어떤 관계적 위치를 점하고 있느냐에 의해 P가 개별화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임의의 두 구조가 “동일한 하나의 구조”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각 자연적 속성들의 통세계적 동일성 기준이 이미 주어져 있고, 따라서 이들의 개별화 원리가 이미 주어져 있음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w1의 G1과 w2의 G2가 서로 동일한 하나의 구조임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가? 구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계들의 집합이며, 관계는 관계항들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렇다면, G1과 G2가 동일한 하나의 구조임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G1과 G2를 이루고 있는 각 관계항들, 즉 각각의 자연적 속성들이 모두 w1과 w2에 걸쳐서 동일한 하나의 자연적 속성들로서 존재하고 있는지가 결정돼 있어야만 한다. 즉,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속성들이 개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속성들로 이뤄진 구조가 개별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버드가 통세계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제시할 수 있는 P에 대한 최선의 개별화 원리는 대략 다음과 같이, 비순환성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형태를 띨 수밖에 없어 보인다.

> P는, P가 (반드시) 속해 있는 비대칭적인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상에서의 위치에 의해서 개별화된다.

위와 같은 형태의 개별화 원리는 통세계적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겠지만, 비순환성 조건은 만족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P가 속해 있는'이라는 구절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로우의 문제에 대한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이, 로우가 정말로 우려했던 지점을 해소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1) 개별화 원리는 통세계적 조건과 비순환성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2) 버드가 통세계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P에 대한 개별화 원리를 주기 위해서는, P가 동일한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에 속해 있음이 보장돼야 한다.
(3) 그런데 그러한 동일한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는 P에 대한 언급을 필요로 한다.
(4) 따라서 버드는 통세계적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비순환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개별화 원리를 동시에 제시할 수 없다.

제 3 절 순환성 반론에 대한 버드의 가능한 답변

결국 버드가 비순환적인 방식으로 P에 대한 개별화 원리를 주기 위해서는, P의 개별화 원리에 등장하게 될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가 P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하나의 구조가 취해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일 터다. 즉, 'P가 속해 있는'과 같은, 순환성을 야기하는 구절이 제거된 개별화 원리를 제공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P가 속해 있는'과 같은 구절이 등장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주요한 가정은, *각각의 가능세계들이 서로 다른 이차 관계들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각 가능세계들마다 서로 다른 자연적 속성들의 류들families이 있을 수 있다면, P의 개별화 원리에서 등장

하고 있는 구조가 P에 대한 구조인지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P의 개별화 원리가 다른 무엇도 아닌 'P'에 대한 개별화 원리이기 위해서는 P가 속해 있지 않은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는 배제돼야만 한다.

이 지점에서 본고가 고려해보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가능세계들이 서로 다른 이차 관계들의 구조들을 포함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어찌보면 상당히 자연스럽게 채택했던 가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가정이 거부될 수 있다면, 그래서, P를 포함한 특정한 자연적 속성들의 집합 및 그것들만으로 이뤄진 단일한 이차관계들의 구조만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버드는 비순환성 조건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개별화 원리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버드는 더 이상 P의 개별화 원리에 등장하게 되는 이차 관계들의 구조를 특징짓는 과정에서 'P가 속해 있는'과 같은 구절을 포함시켜줄 필요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자연적 속성들의 집합만이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만으로 구성된 이차관계들의 구조가 필연적으로 성립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본고의 제안은, (버드의 구분법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각 자연적 속성들을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이해함으로써 '강한' 필연주의strong necessatarianism를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우선 여기서의 필연주의란 자연법칙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성향주의가 필연주의를 함축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보여질 수 있다. 여태껏 우리가 관심 가져왔던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주의적으로 이해된 자연적 속성들이라는 것을 상기하자. 성향주의에 따르면, 모든 자연적 속성들은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것들이었고, 자연적 속성들의 구조란 그러한 성향적 본질을 갖는 속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차 관계들에 의해서 이뤄진 네트워크였다.

성향주의에 따르면, 다음이 성립했다.

$$(5)\ \Box(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그리고 (5)로부터 다음의 (6)이 따라 나온다.(자세한 도출 과정은 3장에서)

(6) □(∀x)((Px & Sx) → Mx)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P의 예화로부터 도출되는 '(∀x)((Px & Sx) → Mx)'은 그저 우연적인 일반화가 아니라 법칙적인 일반화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도출되는 일반화를 자연법칙이라고 여기는 성향주의자들 입장에서 자연법칙은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필연주의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x)((Px & Sx) → Mx)'을 자연적 속성 P에 대한 자연법칙 L(P)라고 했을 때, 약한 필연주의와 강한 필연주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약한 필연주의]
P가 존재하는 가능세계들에서 L(P)가 성립한다.

[강한 필연주의]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L(P)가 성립한다.

약한 필연주의는, 오직 P가 존재하는 가능세계들에서만 L(P)가 성립한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이는, 예컨대, 피터 파커가 태어나지 않은 가능세계가 '□(스파이더맨 = 피터 파커)'라는 명제의 반례가 되지 않듯이, P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가 □L(P)라는 명제의 반례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다. '□(스파이더맨 = 피터 파커)'이라는 주장이 배제하는 세계들은 스파이더맨과 피터파커가 존재하지만 서로 구별되는 개별자들인 세계들이다. 마찬가지로, □L(P)가 배제하는 세계들은, P가 존재하지만, L(P)에 의해서 관장되지 않는 세계들이며, 그렇기에 '□L(P)'는 L(P)가 자연법칙이 아닌

세계가 있다는 것과 양립가능하다.

반면 강한 필연주의는, 약한 필연주의의 의미에서의 '자연법칙이 필연적이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P가 존재하고 있고, L(P)가 성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즉, P는 필연적인 존재자인 셈이다. 약한 필연주의자들은 동일한 자연적 속성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능세계들은 법칙적으로 동일하지만, 강한 필연주의자들처럼 단적으로 모든 가능세계들이 법칙적으로 동일하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약한 필연주의자들은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동일한 자연적 속성들만이 포함돼 있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약한 필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적 속성들은 우연적인 존재자일 뿐이다.

강한 필연주의와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속성에 대한 이해는 속성을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이해하는 것일 터다. 왜냐하면 플라톤적 보편자는 초월적으로, 구체적 시공간을 '넘어서서' 존재하며, 필연적인 존재자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속성을 동일하게 보편자로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적 보편자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화돼야만 존재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존재'하고 있는 필연적인 존재자는 아니다.

이처럼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자연적 속성들을 이해하고, 강한 필연주의를 취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예컨대 현실세계의 P, S, M 등이 서로 내적으로 연결된 이차 관계들의 구조 G1은 단적으로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버드로 하여금 'P가 속해 있는'과 같은 구절을 P의 개별화 원리에서 제거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다. 반복하자면, 'P가 속해 있는'과 같은 구절을 개별화 원리에 포함시켰던 이유는, 서로 다른 가능세계들에서 서로 다른 이차 구조들이 포함돼 있고, 따라서 서로 다른 자연적 속성들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 동일한 하나의 구조가 모든 가능세계들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P를 개별화 하기 위해서 P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구조를, 서로 다른 가능한 속성들의 집합으로부터 골라내야 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이를 이용하면 예컨대 P의 개별화 원리는 다음과 같이 비순환적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P는 이차관계들의 구조상에서의 특정한 위치에 의해서 개별화된다.

여기서의 이차관계란, 플라톤적인 보편자들만으로 형성된 단일한, 내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이러한 플라톤주의적 성향주의에서는, 서로 다른 가능세계들이 서로 다른 속성들의 구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는 달리 말해, 속성들의 개별화 원리가, 여러 가지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서로 다른 보편자들의 구조 속에서, P의 개별화와 관련된 구조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플라톤적 성향주의에서는 오직 하나의 가능한 이차 관계들의 구조만이 있고, 따라서 만약 P가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자연적 속성이라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 구조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위와 같은 개별화 원리는 비순환적일 수가 있게 된다. 주어진 개별화 원리가 앞선 이유에서처럼, P와 관련된 특정한 구조를 선택해야할 이유가 없어진 이상, 개별화 원리가 언급해야만 하는 이차 관계의 구조의 개별화에 대해서도 어떠한 것도 전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제 3 장 성향주의와 추론 문제

제 1 절 법칙주의와 추론 문제

자연법칙에 대한 'D(restke)-T(ooley)-A(rmstrong) 이론'이라도 불리는 법칙주의Nomicism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두 개 이상의 일차 자연적 속성들을 논항으로 취한 이차 관계에 해당한다. 가령, F와 G가 구체적 대상들이 예화하는 일차 보편자들에 해당한다면, 이들을 논항으로 취한 이차 관계 N(F,G)가 자연법칙인 것이다.

법칙주의자들은 N(F,G)로서 이해된 자연법칙에 대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부여한다: N(F,G)의 성립은 보편적 일반화 사실 [(∀x)(Fx → Gx)]의 성립을 함축하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보편적 일반화 사실 [(∀x)(Fx → Gx)]를 F와 G 사이에 규칙성 관계 U가 성립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자.[41] 즉, 'U(F,G)'는 모든 F인 것들이 G이기도 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자연법칙에 대한 법칙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칙적 필연화]
필연적으로, 임의의 자연적 속성 F와 G에 대해, 만약 N(F,G)가 성립하면, U(F,G)가 성립한다. (단,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칙적 필연화]의 필연성 연산자 자체는 세계-상대적 필연성이 아닌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의미한다. 즉, 형이상학적으로 가능한 임의의 가능세계 w에서 만약 N(F,G)가 성립하면, 모든 F인 것들은 G이다. 흔히 암스트롱의 N 관계가 '우연적' 필연화 관계로 여겨지는 이유는, 'N(F,G)가 성립하면'이라는 존재 단서 조항과 함께 N(F,G)가 오직 우연적으로만 성립한다

41) Bird(2005:148)

는 법칙주의자들의 우연주의적 견해 때문이다. 법칙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법칙 N(F,G)가 성립하고 있지 않은 가능세계들은 얼마든지 있으며, N(F,G)가 성립하고 있지 않은 가능세계들에서 만약 F와 G가 그 나름의 규칙성을 띠며 예화돼 있다면 그것은 법칙적인 규칙성이 아니라 그저 우연적으로만[42] 성립하고 있는 규칙성에 불과하다. 함축 관계의 비대칭성에 주목하자. 법칙성은 오직 이차 관계적 사실 N(F,G)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

[법칙적 필연화]를 통해 법칙주의자들이 포착하고자 하는 것은, 만약 F와 G 간에 성립하고 있는 특정한 규칙성(예를 들어,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모든 구체들은 현실적으로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이 정말로 법칙적인 규칙성이라면, F의 예화가 G의 예화를 *요구required*하는 것으로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하나는, F가 그 자체로 G의 예화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향주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생각이다. 성향주의자들은 F의 본질에 G가 포함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F의 예화가 G의 예화를 요구하게 된다고 여긴다. 또 다른 방식은, F가 그 자체로 G의 예화를 요구하기보다는 F 및 G와는 구별되는 별도의 존재자 X가 있어서, F가 X를 '통해서' G의 예화를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법칙주의자들의 생각이다. 법칙주의자들에 따르면, 보편자 F와 보편자 G 사이에 N 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ceteris paribus, F의 예화로부터 G의 예화가 따라 나온다.

법칙주의자들은 **[법칙적 필연화]**를 바탕으로, 루이스로 대변되는 흄주의적 견해에 대한 이론적 우위를 주장한다. 흄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자연법칙이란 규칙성과 구별되는 이차 관계적 사실이 아니라 일차 자연적 속성

---

42) '순전히 우연적으로만 성립하는 규칙성'이 정확히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분명치 않다. 본고는 프실로스의 다음과 같은 설명을 따르도록 하겠다: "[...] 좋은 규칙성들은 자연법칙을 포착하는 반면, 나쁜 규칙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한 가지 두드러지는 생각이다. 관례적인 철학적 용어법에 따라, 우연적으로 참인 일반화들을 참이긴 하지만 자연법칙을 표현하고 있지 않은 일반화들이라고 하자."(Psillos(2003:137))

들이 형성하고 있는 규칙성 그 자체이며 다만 특정한 인식론적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우연적) 규칙성일 뿐이다.

[흄주의적 자연법칙]
모든 F인 것들이 G이다는 것은 법칙적이다. iff (i) 모든 F인 것들이 G이고 (ii) 모든 F인 것들이 G이다는 것이 최선의 연역 체계 Φ의 공리axiom 혹은 정리theorem이다.(혹은, 만약 유일한 최선의 연역 체계가 없다면, 단순성과 설명력strength에 있어서 동일한, 모든 연역 체계들에서의 공리 혹은 정리이다.)[43]

[흄주의적 자연법칙]의 생각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신이 우리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별적인 사실들(흄적 모자이크)에 대한 거대한 책을 작성하여 우리가 이 책을 보고 세계에 대해서 배워나가길 원한다고 해보자. 그런데 신이 보기에,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 유한한 존재자들이기에 개별 사실들의 목록을 공리화하여 최대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보자. 예컨대, 신의 책의 모든 개별 사실들이 f=ma를 만족한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신은 f=ma를 공리로 설정하고, 대상의 질량 및 가속도와 관련된 사실들을 제외한 대상의 힘과 관련된 사실들은 제거해버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힘과 관련된 사실들은 질량 및 가속도와 관련된 사실들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신은 공리들의 목록들도 가능한 한 짧게 작성하여 연역 체계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완성된 '신의 책'으로부터 연연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우연적 일반화가 흄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법칙인 것이다.

법칙주의자들이 보기에, 흄주의적 견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불만족스럽다. 첫째, 그저 우연적인 규칙성과 법칙적인 규칙성 간의 차이가 실

43) "우연적인 일반화는 자연법칙이다 iff 만약 그것이 단순성과 설명력에 있어서 최선의 조합을 성취한, 참인 각 연역 체계들에서 정리(혹은 공리)로 등장한다."(Lewis(1973:73))

재세계에서의 객관적 특질에서의 차이에 반영되지 않는다. 즉, 설령 흄주의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규칙성 사실이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판명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째서 법칙적인 규칙성인지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근거가 흄주의자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모든 구체들은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를 U(F,H)라고 하고, [금으로 만들어진 모든 구체들은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를 U(G,H)라고 해보자. 우라늄 235는 특정한 질량에 다다르면 붕괴해버리는 반면, 금과 관련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원리적 사실이 없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오직 U(F,H)만이, 예컨대, 반사실조건문 "만약 x가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구체였다면, x는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칙적 규칙성이라는 판단을 내리길 원한다고 해보자. 이때 흄주의자들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오직 U(F,G)만이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성립하게 되는 이유는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모든 구체들은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 최선의 연역 체계의 공리 혹은 정리이기 때문이다.

법칙주의자들이 보기에, 이는 지나치게 주관적, 인식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법칙성은 우리의 관심 여하와는 관계없이, 자연세계에서 객관적으로 성립하고 있는 특질이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최선의 연역 체계를 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체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면, 반사실조건문 "만약 x가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구체였다면, x는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는 거짓으로 판명나거나 혹은 부당한 것이 되는가?(Psillos(2003:156)) 법칙주의자들은, 주어진 반사실조건문은 "우라늄 235로 만들어진 모든 구체들은 지름이 1마일을 넘지 않는다."와 같은 일반화 문장이 최선의 연역체계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간에 참일 수 있어야 한다. 법칙주의자들은 이를 N 관계를 도입함으로써 포착할 수 있다고 답한다. 법칙주의에 따르면, U(F,H)가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성립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F와 G 사이에 이차 보편자로서의 N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덕분이다. N(F,G)의 성립은 U(F,G)의 성립을 함축해준다. 즉, N(F,G)가 U(F,G)가 법칙적인 규칙성이라는 것의 형이상학적인 근거인 셈이다.

흄주의에 대한 법칙주의의 두 번째 불만은, 흄주의자들의 말대로 자연법칙이 특정한 인식론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규칙성 자체에 불과하다면, 그리고 자연법칙의 역할이 그것의 사례들을 설명해주는 것이라면, 어떻게 규칙성 자체가 그것을 이루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예컨대, 모들린Maudli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만약 자연법칙이 흄적인 모자이크의 일반적인 특성들에 불과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모자이크 자체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그러한 법칙들에 호소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자연법칙들은 모자이크 덕분에 법칙들이며 그 역이 아니다.[44]

법칙주의자들의 이러한 생각은, 설명적 관계라는 것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 사이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왜 눈앞에 있는 이 보석이 단단한지에 대한 설명을 얻길 원한다고 해보자. 가능한 한 가지 단순한 설명은 이 보석은 다이아몬드이고, 모든 다이아몬드인 것들은 단단하다는 것은 법칙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일테다. 그런데 만약 흄주의자들의 말

---

44) Maudlin(2007:172) 잘 알려져 있다시피, 암스트롱 역시 이와 유사한 논증을 제시한 바 있다: “[흄주의에 따르면] 자연법칙은 그저 규칙성들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모든 관찰된 F들이 G들이라는 것을 모든 F인 것들이 G들이라는 가설에 호소함으로써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이 설명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모든 F인 것들이 G들이라는 것은 모든 관찰된 F들이 G들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뤄져 있는 복합 사태이다. ‘모든 F인 것들이 G들이다’는 ‘모든 관찰된 F들이 G들이고, 모든 관찰되지 않은 F들이 G들이다’로서 새로이 써질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모든 F들이 G들이라고 상정함으로써 어째서 모든 관찰된 F들이 G들인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설명돼야만 하는 것이 그것의 부분인 사태에 호소함으로써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관찰되지 않은 F들이 G들이라는 것은 왜 모든 관찰된 F들이 G들인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 (Armstrong(1983:40)) 다만, 암스트롱은 이 논증을 진행하기 위해 관찰성에 대한 논의를 들여오고 있기에 모들린의 지적과는 사뭇 이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처럼 규칙성 자체가 자연법칙이라면, 이 보석이 단단하다는 것이 규칙성의 한 사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위와 같은 (비록 단순하지만) 설명은 [이 보석은 단단하다.]는 사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복합적인 사실 [모든 다이아몬드인 것들은 단단하다.]에 의해서 다시금 [이 보석은 단단하다.]는 사실이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흄주의적 설명이 정말로 그럴듯하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 보는 것은 본고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흄주의적 설명이 그럴 듯하지 않다고 여긴 법칙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들이 U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일차 자연적 속성들과는 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독특한 범주로서의 N 관계를 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을 것이다.

> 자연법칙은, 하지만, 규칙성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F인 것들이 G이다는 흄적인 균일성uniformity을 우리가 취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균일성의 설명은 F인 것들이 G이다라는 것이 법칙이다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규칙성 이론에 따르면, 이는 자연법칙을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연법칙이 그것의 발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연법칙과 그것의 발현 사이에 **어떤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45]

하지만 암스트롱의 N 관계는 그것이 소개된 이후 다양한 비판들에 노출됐다. 특히 많은 철학자들이 N(F,G)가 정확히 어떻게 U(F,G)의 성립을 함축할 수 있는지를 의심스러워했다. **[법칙적 필연화]**를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 법칙주의자들은 다음의 (1)로부터 (2)로의 추론을 종용하고 있다.

(1) N(F,G)
(2) 모든 F인 것들은 G이다.

그런데 (1)은 그저 두 개의 보편자들이 서로 N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

45) Armstrong(1983:41)

차 관계적 사실이고, (2)는 구체적 대상들에 관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1)로부터 (2)로의 추론을 가능케 해주는가? N(F,G)에 의한 U(F,G)의 함축은 '논리적'인 함축이 아니다. 만약 법칙주의가, 자연법칙을 기술해주는 *용어들*와 규칙성을 기술해주고 있는 *용어들* 간의 의미론적인 연결이 있는 덕분에 N(F,G)가 U(F,G)를 함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였다면, 그러한 의미의 자연법칙이 얼마나 형이상학적인 설명력이 있는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1)로부터 (2)로의 함축 자체가 신비로운 종류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46] 그렇기에, 만약 법칙주의자들이 (1)로부터 (2)로의 추론이 논리적/의미론적인 함축에 바탕으로 두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길 원한다면, 그들은 다음의 (3)이 참인 이유를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줘야만 한다.

(3) 모든 x에 대해서, 만약 N(F,G)이고 x가 F이면, x는 G이다.

[법칙적 필연화]는 결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제가 아니다. U(F,G)와 같은 일반화 사실들이 갖고 있는 주요한 특징은, 보편양화사에 포섭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례가 발생([Fb])하게 됐을 때, 일반화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될 ([~Gb])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제약도 가해주지 않는 사실들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때문에, 우리는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아직까지 관찰되지 않은 미래의 사실들로의 귀납이 정당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법칙주의에 따르면, 우리는 N(F,G)와 [Fa]의 성립으로부터 [Ga]의 성립을 추론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N(F,G)로 하여금, [Fa]가 주어졌을 때 [Ga]의 성립이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가?

여러 철학자들이 불만을 표명했다. 예컨대 사이더Sider는 "고매한 보편자들의 영역에 있는 어떤 사태, 즉 두 개의 보편자들을 맺어 주고 있는 이

46) 서로 전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자'들 간의 필연적인 연결은 거부하고, 오직 의미론적/논리적인 함축 관계가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것은 오히려 흄주의자들의 정신에 가깝다.

멋진 관계가 어떻게 저 아래의 단단한 사실들, 즉 지상의 개별자들에 관한 사실로 변할 수가 있는가?"(Sider(1992:261))라며 의구심을 표했으며, 루이스 역시 암스트롱의 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재담을 남긴 바 있다.

> N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Ga 없이 N(F,G)와 Fa를 가짐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암스트롱은) 법칙을 만들어내는 보편자 N의 이름으로 '필연화'를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 F가 G를 '필연화'하고, a가 F를 갖게 되면, a는 G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을 들었을 때 누가 놀라겠는가? 나는 N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요구되는 필연적인 연결들에 들어설 수 있을 경우에만 N이 '필연화'라는 이름을 가질만하다고 생각한다. "암스트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는 강력한 이두박근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필연화"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만으로는 필연적인 연결들에 들어설 수 없다.[47]

특히 반 프라센van Frassen은 이러한 불만들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적 요구를 법칙주의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로서 정식화했다. 그는 이를 '추론 문제inference problem'라 명명했다.

> 어떤 일들이 일어나며 대상들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한 속성이 다른 한 속성을 필연화한다는 진술이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는가?[48]

제 2 절 버드의 딜레마 논증

버드에 따르면, 법칙주의는 추론 문제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견해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그는 우선 자연적 속성들의 본성에

47) Lewis(1983:366)
48) van Frassen(1989)

대한 암스트롱의 범주주의적 견해를 지적한다.

> (암스트롱에 따르면) 자연적 속성들은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범주적이다: 그들은 본질적인, 혹은 사소하지 않은 양상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 속성들은 본질적으로 혹은 필연적으로 성향적인 특징이나 힘을 갖거나 부여하지 않는다.[49]

이를 바탕으로 버드는 암스트롱이 그의 범주주의와 **[법칙적 필연화]**를 함께 취할 수 없음을 지적하기 위한 딜레마 논증을 구성한다.

N(F,G)는 U(F,G)를 함축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첫 번째 뿔. **[법칙적 필연화]**에 따라 N(F,G)가 U(F,G)를 함축해낼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N(F,G)가 U(F,G)를 함축해낸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의미의 함축이 아니다. N(F,G)가 곧 U(F,G)인 것도 아니며, U(F,G)가 N(F,G)의 구성요소constituent도 아닌 이상, N(F,G)에 의한 U(F,G)의 함축은 전적으로 구별되는 두 사실들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N이 자기 자신이 아닌 U와 관련된 사실들을 함축해낼 수 있는,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보편자임을 함의한다. 즉, N은 *F와 G를 취해서 F와 G 사이에 U 관계가 성립하도록 만들어준다*와 같은 인과적/법칙적 역할[50]을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보편자인 것이다.[51] 그런데 N이야말로 자연 세계의 '결'을 갈라주고 있는 근본적인 자연적 관계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N은 일차 자연적 속성들이 어떤 식으로 배분돼야만 하는지를 형이상학적으로 결정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암스트롱에 따르면, 모든 자연적 속성 및 관계들은 성향적인 본질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암스트롱은 N에 대해서도, 그것이 오직 사소한 의미의 본질만을 갖고 있는 보편자라고

---

49) Bird(2005:147)

50) 이것이 인과적/법칙적 역할인 이유는, F와 G가, 예컨대 확정능자determinable 및 확정자determinate와 같은 공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속성들이 아니라 통시적인, 인과적/법칙적 관계에 놓여있는 속성들이기 때문이다.

51) "현실세계에서 N 관계는 언제나 U 관계를 그것의 관계항들에게 부여해준다; 하지만 [범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N이 U 관계를 부여하지 않는 가능세계들도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Bird(2005:150))

말해야 한다. 즉, N 역시 다른 모든 일차 자연적 속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관련한 어떤 사실들도 함축해낼 수 없는 보편자이게끔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스트롱의 범주주의와 **[법칙적 필연화]**는 양립 불가능하다. 범주주의가 암스트롱의 근본적인 입장임을 감안했을 때, 암스트롱은 **[법칙적 필연화]**를 폐기해야 한다.

두 번째 뿔. N(F,G)가 U(F,G)를 함축할 수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암스트롱은 **[법칙적 필연화]**에 호소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N(F,G)와 [Fa]로부터 [Ga]를 추론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N(F,G)가 U(F,G)를 실질 함축할 뿐이거나, 혹은 N(F,G)가 U(F,G)를 '우연적'으로만 필연화 한다.

N(F,G)가 U(F,G)를 실질 함축할 뿐이라고 하자. 그런데 이는 법칙주의를 취했던 이론적 동기를 폐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N(F,G)가 U(F,G)를 실질 함축할 뿐이라면, 암스트롱은 흄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U 관계들만으로도 법칙성이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U(F,G)가 어째서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성립하게 되는지가 형이상학적으로 근거 지어져야 한다는 법칙주의의 동기를 훼손하길 원치 않는다면, 암스트롱은 U 관계라는 외연적인 관계 하에 N 관계가 포섭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반면, N(F,G)가 U(F,G)를 오직 '우연적'으로만 필연화한다고 해보자. 즉, F의 예화와 G의 예화가 어째서 법칙적인 방식으로서 연계돼야만 하는지를 설명해내기 위해 N 관계를 도입했던 것처럼, N(F,G)가 성립하면 왜 U(F,G) 역시 성립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N(F,G)와 U(F,G)를 연계해줄 수 있는 삼차 관계 N'을 도입해 보자는 것이다.

[법칙적 필연화+]
필연적으로, N'(N,U)가 성립하면, 만약 N(F,G)가 성립하면, U(F,G)도 성립한다. (단,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법칙적 필연화+]**는 무한 퇴행을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여전히

N'은 함축 관계일 수도, 실질 함축 관계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 N'이 함축 관계라고 해보자. 이는 결국 **[법칙적 필연화]**를 다시 받아들이자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뿔에서 **[법칙적 필연화]**를 폐기했다. 반면, N'이 실질 함축 관계라고 해보자. 이 역시 암스트롱이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N(F,G)가 U(F,G)를 실질 함축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또 다시 남게 된 유일한 선택지는, 새로운 '우연적' 필연화 관계 N"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버드는 이러한 N, N', N", ... 등으로의 연쇄가 악성 무한퇴행임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이러한 퇴행은 악성적인가? 그렇다. 그러한 관계들의 무한한 위계의 존재 자체는 반대할만하지 않다. [...] 필연화의 위계에서 N^n은, 어떤 준-양상적이고 설명적인 속성을 가져야만 되는 것으로서 주어져 있지만, 그것들은 오직 N^{n+1}이라는, 정확히 같은 종류의 준-양상적이고 설명적인 속성을 가진 것들에 의해서만 부여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양상성과 설명력은 위치 지어지지 않은 것이다.[52]

버드의 말대로, N, N', N", ... 등으로의 퇴행은 그러한 퇴행 자체가 무한하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추론 문제의 해결은, 자연세계에 절대적으로 근본적인 사실이 있어야 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아무리 퇴행 과정을 무수하게 거치더라도 최초에 형이상학적으로 설명되기로 기대됐던 사실이 끝까지 설명되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N, N', N", ... 등으로의 퇴행은 악성적인 무한 퇴행이게 된다. 암스트롱은 N(F,G)가 U(F,G)를 함축해줄 수 있다는 정확히 바로 그 사실을 빌미로, U(F,G)가 왜 법칙적인 규칙성인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설명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 그리고 그 덕분에 흄주의자들과 구별될 수 있었는데 — N(F,G)가 U(F,G)를 함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법칙적'으로만 필연화해줄 뿐이라면 아무리 N, N', N", ...등이 무수하게 이어진다고

52) Bird(2005:151)

하더라도 최초에 암스트롱이 N(F,G)에게 부여하고자 했던 설명력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버드가 암스트롱에게 지적하고 있는 핵심적인 의문점은, 암스트롱이 모든 자연적 속성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오직 비성향적/비관계적인 본질만을 갖고 있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어떤 자연적 속성들보다 더 '자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자연법칙 N 자체에 대해서는 오직 성향적인 본질을 가짐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는 이론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암스트롱이 버드의 논증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대략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인다. 첫 번째 가능한 답변은, N(F,G)가 사실은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태들로 이뤄진 복합 사태라고 여기고, U(F,G)를 그러한 복합 사태의 부분 혹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사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예컨대, a와 b를 진-부분으로 갖는 부분전체론적 합 a+b와 그것의 진-부분 a 간의 필연적인 연결은 신비롭거나 원초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론적 의존에 근거한 필연적인 연결이다. 그렇다면, 이를 이용해서 암스트롱 역시 U(F,G)가 N(F,G)의 부분 혹은 구성요소인 덕분에 함축관계가 성립한다고 답할 수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답변은 암스트롱의 철학 전반을 고려해봤을 때도, 한 가지 유망한 답변인 것처럼 보인다. 암스트롱의 '독립성Independence 원리'에 따르면, 서로 전적으로 구별되는 두 사태들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성립하고 있을 수 없지만, 전형적으로, 부분-전체 혹은 구성요소-전체 관계를 맺고 있는 두 사태들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결이 성립하고 있을 수 있다.

> 무엇이 독립성인가? 사태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iff (1) 단일한 연언을 포함해, 그 어떠한 사태들의 연언도 **전적으로 구별되는** 사태들의 존재를 함축하지 않으며 (2) 단일한 연언을 포함해, 그 어떠한 사태들의 연언도 전적으로 구별되는 사태들의 비존재를 함축하지도 않는다. [...]
> 만약 하나의 사태가 다른 사태의 진-부분이라면, 두 사태들은 서로 다르지만 **전적으로 다르지는 않기에**, 더 '큰' 사태가 다른 하나의 존재를 함축한다. [...] 만약 대상이 1킬로그램의 질량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해당 시점에

> 1파운드의 질량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 만약 우리가 보편자들을 사태들의 유형이라고 생각해본다면, <1킬로그램> 보편자는 연언적인 사태 유형이다. 그것은 <1파운드> 사태 유형과 또 다른 사태 유형과의 연언이다.[53]

하지만 사태들 간의 부분-전체 관계에 호소함으로써 필연적인 연결을 근거지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답변은, 최소한 암스트롱 스스로가 정합적인 방식으로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만약 U(F,G)가 N(F,G)의 부분 혹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사태이게 되면, 암스트롱은 N(F,G)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했던 U(F,G)에 대한 설명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N(F,G)가 M(F,G) 및 U(F,G)로 이뤄진 복합 사태라고 해보자. 즉, N(F,G) = M(F,G) + U(F,G)이다. N(F,G)는 자연법칙으로서, U(F,G)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N(F,G)의 두 부분 사태들 중 어떤 것이 U(F,G)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첫째, N(F,G)의 부분 사태로서의 U(F,G)가 U(F,G)를 설명해줄 수는 없다. 규칙성 자체가 규칙성을 설명해줄 수 없다는 것이 흄주의에 대한 법칙주의의 주된 비판이었고, U(F,G)와 구별되는 N(F,G)를 상정한 이유이다.

둘째, 그렇다면, M(F,G)가 U(F,G)를 설명해줄 수 있을까? 이 역시 그럴 듯해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법칙주의에 의거했을 때, 만약 M(F,G)가 U(F,G)를 설명하는 사태라면, M(F,G)는 U(F,G)를 함축해줄 수 있어야한다. 하지만, M(F,G)는 U(F,G)를 함축해줄 수 있는 종류의 사태가 아니다. 가정상, 우리는 오직 U(F,G)를 부분으로 하고 있는 사태만이 U(F,G)를 함축해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M(F,G)는 U(F,G)를 부분 사태로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N(F,G)가 M(F,G)와 U(F,G)를 '부분'으로 갖고 있는 복합 사태라는 가정과 배치된다. M(F,G)와 U(F,G)는 서로 독립적인 사태이어야 각자 부분으로서 N(F,G)를 구성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M(F,G)는 U(F,G)를 함축해줄 수 없고, 그러므로 설명해줄 수도

53) Armstong(1997:140)

없다. N(F,G)의 두 부분 사태들 모두 U(F,G)를 설명해줄 수 없으므로, 복합 사태 N(F,G)는 자연법칙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버드의 논증에 대해 암스트롱이 내놓을 수 있는 두 번째 가능한 답변은, 일차 자연적 속성들을 제외한 N에 대해서만 성향적인 본질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암스트롱은 N의 성향적인 본질 덕분에 N(F,G)가 U(F,G)를 함축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F가 예화되고 G가 예화되면 U(F,G)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범주주의를 포기하자는 것에 해당하는 이 답변은, 암스트롱이 이러한 답을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존재론적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성향주의에 비해 결코 나은 점이 없어 보인다. 만약 속성이 성향적인 본질을 가질 수 있음을 수용한다면, 굳이 N에 대해서만 그러한 허용을 제한할 이유가 있는가? 예컨대, 일차 자연적 속성 P의 본질 자체에 Q와의 관계가 포함돼 있다면, N이 없더라도 P는 그 자체로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Q의 예화를 함축해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단일한 하나의 성향적 본질을 갖는 N 관계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 속성의 항adicity의 개수 역시 속성의 본질 혹은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요소라고 한다면, 2항, 3항, 4항, ... 등등의 논항을 취할 수 있는 N 관계들을 상정해주는 것이 보다 정합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법칙주의의 존재론적 경제성은 보다 더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성향적인 본질을 갖는 속성의 수용을 통해, P와 Q 사이에 법칙적인 규칙성이 대체 왜 성립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일차 자연적 속성들만으로도 그러한 목표를 취할 수 있는지 성향주의를 취함이 보다 경제적일 것이다. 버드 역시 논증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이 글의 논증은 암스트롱이 [추론] 문제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일관적인 대답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 [법칙주의자]들은 자연법칙의 양상적 특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는 그들이 규칙성 견해를 거부할 동기를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칙적 필연화를 약하고, 우연적인 관계로만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추론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없게 됐다. **추론 문제는 오직 필연화가 본질(본질적으로, 만약 N(F,G)라면 U(F,G))을 가질 때에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N이 그것과 구별되는 속성, [U]와 관련돼 있는 본질을 갖도록 허용한다면, F 자체가 그것과 구별되는 속성 G와 관련돼 있는 본질을 갖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해 반론이 있을 수가 없다. 이 경우에, 우리는 N을 전적으로 폐기해버릴 수 있을 것이다.[54]

제 3 절 추론 문제와 두 성향주의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법칙주의가 처한 상황이 특별히 유망해 보이지는 않는다. 버드의 딜레마 논증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만약 암스트롱이 반 프라센의 설명적 요구에 대해, N(F,G)가 그저 원초적으로 U(F,G)를 함축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N이 본성적으로 U(F,G)를 함축해낼 수 있는 보편자라고 답하길 원한다면, 암스트롱은 그가 애초에 법칙주의를 취하게끔 종용했던 근본적 철학적 입장인 범주주의를 폐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범주적인 속성으로서, 즉, 오직 비성향적/비관계적 본질만을 갖는 보편자로서의 N은, 암스트롱이 최초에 N에게 기대했던 이론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자다. 물론, 한 가지 언급해둘 만한 사안은, N이 *본성적으로* U(F,G)를 함축해줄 수 있다는 답변 역시, 만약 그러한 답변을 암스트롱이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원초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N(F,G)와 U(F,G) 사이에 맹목적인 필연적 연결이 존재한다고 말을 하는 것과 N이 그러한 필연성의 원천이라고 답을 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 버드는, 그렇다고 법칙주의자들이 **[법칙적 필연화]**에 호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반 프라센의 설명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님을 보여줬다. **[법칙적 필연화]**를 폐기한다면, 법칙주의자들은 흄주의와 사실상 큰 차이가 없게 되거나 혹은 무한한 설명적 퇴행에 빠져 버리게 된다.

---

54) Bird(2005:154)

비록 법칙주의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들을 살펴봤지만, 이것들이 법칙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택지들은 아닐 것이다. 예컨대, 암스트롱은 단칭 인과 자체를 N 관계의 예화로서 이해하면 추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대응한 바 있다.(Armstrong(1993)) 하지만 법칙주의자들이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선택지들에 대한 고려는, 본고의 목적상 특별히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본고가 주요하게 던져보고자 하는 질문은, 그렇다면 과연 성향주의 및 질적 성향주의는 추론 문제를 (특히 법칙주의와 비교해봤을 때)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입장이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자 한다: 성향주의는 법칙주의자들보다 추론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지만, 질적 성향주의는 법칙주의가 처한 상황과 비교해봤을 때 특별히 나은 점이 없다. 즉, 최소한 추론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서는, 성향주의가 질적 성향주의보다 나은 입장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우선, 성향주의자들이 어떻게 법칙주의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일차 자연적 속성들의 규칙적인 예화 패턴을 설명해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성향주의에 따르면, 다음의 (1)이 참이었다.

$$(1)\ \Box_P(Px \rightarrow (Sx\ \Box\!\!\rightarrow Mx))$$

그리고 (1)로부터 (2)가 따라 나온다.

$$(2)\ \Box(Px \rightarrow (Sx\ \Box\!\!\rightarrow Mx))$$

조건 증명을 위해, 임의의 가능세계 w에 대해서, w의 대상 x가 P를 예화하고 있고 그것이 자극 S를 받았다고 해보자.

$$(3)\ Px\ \&\ Sx$$

(2)와 (3) 그리고 전건 긍정에 의해, 다음의 (4)가 따라 나온다.

(4) Mx

조건 증명에 의해, (3)과 (4)는 다음의 (5)를 도출한다.

(5) (Px & Sx) → Mx

그런데 x는 w 세계의 임의의 존재자였으므로, 다음의 (6)이 따라 나온다.

(6) (∀x)((Px & Sx) → Mx)

(6)은 본질적으로 성향적인 P가 예화됐다는 사실만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참인 보편적 일반화에 해당한다. 이때, (6)은 임의의 가능세계 w에서 참이므로 다음의 (7)이 참이 된다.[55]

(7) □(∀x)((Px & Sx) → Mx)

(6)은 그저 우연적으로 성립하는 규칙성이 아니다. (7)이 말해주고 있

55) 전형적으로, 성향주의자들은 P가 예화됐다는 사실만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6)을 자연법칙이라고 여긴다.(Bird(2007), Demarcast)) 여기서 성향주의자들이 의미하는 '자연법칙'이란, 일차 자연적 속성들이 어떤 식으로 예화돼야만 하는지를 형이상학적으로 결정해줄 수 있는, 암스트롱의 N과 같은 의미의 자연법칙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루이스와 같은 흄주의자들이 '자연법칙'이라고 말할 때의 '기술적인descriptive' 의미에서의 자연법칙에 해당한다. 예컨대, P를 <질량이 m임>, S를 <힘 f하에 놓임>, M을 <가속도 a임>이라고 해보자. 암스트롱의 자연법칙 N은, P, S, M과는 구별되는 존재자임에도 P, S, M을 논항으로 취하면(N((P&S), M) (6)의 규칙성을 필연화해주는 것으로서 상정된 것이지만,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법칙(=쿨롱의 법칙)은 P, S, M과 구별돼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P가 어떤 인과적 역할을 갖고 있는 속성인지를 기술해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듯, (6)은 (1)과 같은 의미의 본질을 갖는 P가 예화됐다는 사실로부터 함축되는 규칙성으로서, P의 본질에 S 및 M이 포함돼 있는 덕분에 자연세계에 성립할 수 있는 법칙적인 규칙성이다. 예컨대, x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양전하를 띤 y와 적절한 거리를 형성했는데도 x와 y가 서로를 밀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칙성에 위배되는 자연현상이다. 엄밀히 말해, 그것은 <음전하임>이라는 속성의 본성에 위배되는 자연현상이다.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법칙성의 근거는 존재자의 본성이다. 그렇기에 만약 y가 밀려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x와 y 사이에 어떤 외재적인 방해 요인들이 개입했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

물론 법칙주의자들도 (6)의 규칙성이 자연법칙 N((P&S), M)의 성립으로부터 함축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문제는, (6)의 규칙성이 필연화된다고 할 때, 그러한 필연화가 무엇 덕분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냐는 것이었다. 그것이 반 프라센과 루이스가 던졌던 의문이다. 법칙주의자들은 P, M, S와 같은 속성들의 본질 혹은 물적 정의 어디에도 서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여기면서도 P와 S가 예화되면, M이 예화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돼야만' 한다는 것은 단지 대언적 필연성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다. 법칙주의자들도 자연적 필연성이 대물적 필연성으로서 성립하고 있길 원한다. 이를 위해 법칙주의자들은 P, S, M을 이차 관계 N으로서 연결시켰다. N이 그러한 필연성을 보장해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 하에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N 자체도 그것의 본질에 P, S, M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도 없는 존재자라는 것이다. N은 '그저' P와 S가 주어지면, M이 산출될 수 있게끔 해주도록 상정됐다. 우리는 N에 대한 루이스의 의문을 다음과 같이 달리 던져볼 수 있겠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을 그것의 본질에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N이 어떻게 다른 속성의 예화를 필연화해줄 수 있는가?

반면,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6)의 함축은 존재자의 본성으로부터 비롯한 '형이상학적' 필연화다. 'P가 예화되고, S가 예화됐을 때,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무엇이 M의 예화되는 것을 실패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향주의자들은 그것이 P가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있는 덕분이라고 얼마든지 정합적인 방식으로 대답해줄 수 있다. 성향주의자들에게 자연적 필연성은 그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의 본질로부터 비롯한 형이상학적 필연성이다. P의 예화, S의 예화로부터 M의 예화로의 추론은, P의 성향적인 본질에 의해 보장되는 추론이다.

그런데 이제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추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보성이 있는 답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해보자. 추론 문제의 핵심은 일차 자연적 속성들의 예화와 관련한 사실이 필연화 된다고 할 때, 그러한 필연성이 무엇으로부터 비롯하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법칙주의자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의 주장은, '⇒'이 형이상학적 근거관계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8)\ (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8)로부터 다음의 (2)가 따라 나오기에,

$$(2)\ \Box(Px \rightarrow (Sx \ \Box\!\!\rightarrow Mx))$$

질적 성향주의자들 역시 성향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음의 (7)을 이끌어냄으로써

$$(7)\ \Box(\forall x)((Px\ \&\ Sx) \rightarrow Mx)$$

$[(\forall x)((Px\ \&\ Sx) \rightarrow Mx)]$이 어째서 법칙적인 규칙성으로서 성립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법칙주의자들의 설명 방식과 다를 바 없다. 비록 법칙주의자들이 명시적으로 형이상학적 근거관계에 호소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주장은 얼마든지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9)\ N(F,G) \Rightarrow (\forall x)(Fx \rightarrow Gx)$$

물론 법칙주의자들과 질적 성향주의자들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칙주의자들은 자연적으로 양상적인 사실들의 형이상학적 근거가 자연법칙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이지만,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특정한 속성의 예화라는 단칭적인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성향주의자들보다 각 자연적 속성들이 '힘'을 보다 더 진지하게 여기고 있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본질에 포함돼 있지 않는 속성이, 자기 자신과 다른 속성들과 관련된 사실들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줌으로써 필연화해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주요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법칙주의자들과 질적 성향주의자들 모두 동일하게, 정체성 의존 혹은 존재론적 의존에 근거해 있지 않은 형이상학적 필연성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며,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여전히 반 프라센 혹은 루이스 등이 가졌던 의구심에 두 견해 모두 노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Sx □→ Mx]을 반사실조건문적 사실 혹은 사태라고 해보자. 이러한 양상적 사실은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적 속성들의 본질 혹은 물적 정의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실들이다. 즉,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각 자연적 속성들은 철저하게 비관계적으로 개별화되는(S 및 M을 그 본질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원초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 o가 둥글다고 해보자. o가 둥글다는 것은 단적으로, 만약 o가 딱딱하고 중력장 안에서 경사면 S 상에 놓여있었더라면, o는 S를 굴렀을 것임을 형이상학적으로 필연화해준다. 왜냐하면, o가 둥글다는 것은 곧 o가 이러저러한 힘을 갖질 수 있도록 근거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질적 성향주의자들에 따르면] 속성들은, 양상적인 관계들 혹은 반사실조건문적 구조들에 의해서 이뤄져being constituted 있는 덕분에 내적으로 힘들을 포함하게 됨incorporating the power으로써 힘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상적인 힘을 만들어내거나producing 혹은 근거함으로써 힘이 있게 된다.[56)]

[Sx □→ Mx]의 성립이 필연화될 수 있기만 하면, 특정한 규칙성의 성립이 필연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필연화의 원천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P가 예화됐다는 사실과 [Sx □→ Mx] 간의 설명적 연결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존재자의 본성으로부터 파생된 설명적 관계인가? 성향주의자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성향주의자들은 이러한 설명적 관계가 원초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두 사실들 간의 설명적 연결은 원초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근거해준다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준다는 것의 다른 표현일 뿐, 필연화가 무엇으로부터 비롯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아니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이러한 본고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해줄 수 있는지 고려해보자.

첫째, P가 [Sx □→ Mx]의 성립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줄 수 있는 존재자이면, [Sx □→ Mx]는 P의 본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즉, A가 B를 근거해주면, B는 A의 본질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질적 성향주의 역시 존재론적 의존에 근거한 필연적인 연결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성향주의자들만큼이나 성공적으로 추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답변은, 근거 관계가 의존 관계를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하면 그럴듯하지 않은 답변이다. 예를 들어, 선언적 사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 눈은 하얗다 ∨ 플라톤은 철학자이다.]이 있다고 해보자.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는 이러한 선언적 사실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주지만,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의 본질에 눈은 하얗다, 플라톤은 철학자이다와 같은 사실들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P가 반사실조건문적 사실을 근거해준다고 해서, 반사실조건문적 사실이 P의 본질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56) Barker(2011)

게다가, 만약 A가 B를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주면, B의 본질에 A가 포함돼 있다고 말하는 편이 오히려 보다 더 그럴듯하다. 예컨대,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해주며, 역으로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A가 B를 근거해주면, B가 A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 및 의존 간의 연관성을 받아들여준다고 하더라도,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Sx $\Box\!\!\rightarrow$ Mx]가 P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지 그 역이 아니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이 내놓을 수 있는 한 가지 유망해보이는 답변 중 하나는, 반사실 조건문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준다는 것 자체가 P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일 수 있다. 이는 턱비가 제안한 다음과 같은 질적 성향주의의 도식을

> 질적 성향주의의 도식: P가 자연적 속성이라고 했을 때, 필연적으로, 만약 x가 P를 가지면, x가 P인 덕분에, 만약 x가 F였더라면, x는 G였을 것이다.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했더라면)[57]

보다 본질주의적으로 이해해서, '필연적으로'가 P의 본질로부터 비롯한다고 이해하는 방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퀴디티로서의 P는 단순히 특정한 반사실조건문들을 근거해줄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근거해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근거해주는 본성을 갖는다고 여기는 셈이다.

그렇다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동일했더라면' 구절을 무시한다고 했을 때), 본질주의적으로 이해된 질적 성향주의의 논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서 이해해볼 수 있을 것이다.

[질적 성향주의*]

$\Box_P(Px \Rightarrow Sx \Box\!\!\rightarrow Mx))$

57) Tugby(2012)

질적 성향주의*는 최초의 질적 성향주의보다는 나은 입장인 것처럼 보인다. 질적 성향주의*에 따르면, P의 예화가 반사실 조건문들을 근거해준다는 것은 원초적인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P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 예화들과의 설명적 관계가 무엇 덕분에 성립하게 되는지를, 성향주의자들만큼이나 정보성 있게 말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질적 성향주의의 최초 동기를 훼손하는 것처럼 보인다. 질적 성향주의자들의 최초 동기는, P, S, M이 서로 전적으로 구별되는 속성들로서, 각자의 원초적인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속성이면서도 특정한 양상적 사실을 필연화해줄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질적 성향주의*는 P의 본질에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속성들과 관련한 관계적 사실들이 포함돼 있다. 이는 성향주의자들의 정신에 가깝다.

나가는 말

이 논문에서 나는 모든 근본적인 자연적 속성들이 성향적인 본질을 갖고 있는 덕분에 속성들의 예화가 규칙적인 방식으로 배분돼 있음이 필연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성향주의와, 속성이 대상의 인과력의 형이상학인 근거인 덕분에 특정한 규칙성 사실이 필연화된다고 주장하는 질적 성향주의를 비교하고자 했다. 비록 이 두 진영 간의 이론적 우열을 비교할 수 있는 모든 논점들을 다루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정체성 퇴행/순환의 문제의 해결과 추론 문제의 해결이라는 두 기준에 비춰 봤을 때, 질적 성향주의보다 성향주의가 보다 더 그럴 듯한 입장임을 주장했다.

속성의 본성에 대한 표준적인 입장이었던 범주주의와 대비되는 성향주의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개입은, 존재자(=자연적 속성)가 관계적인 본질을 가질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이다. 성향주의자들은 속성이 특정한 유형의 인과적 발현을 '향해' 있다는 방향적 특질이 발현 속성과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맺고 있는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가장 잘 포착될 수 있다고 여기는 입장이다. x가 y와 관련한 관계적인 본질을 갖는다는 것은 곧 x가 y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향주의자들은 존재론적 의존을 통해서 성향의 방향성이 설명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반면, 질적 성향주의는 속성들이 관계적인 본질을 가질 수는 없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범주주의와 그 정신을 공유하지만, 속성과 인과적 발현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성향주의와 그 정신을 공유한다. 그러나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속성이 인과적 인과적 발현을 '향해' 있다는 방향적 특질이, 의존성을 통해서 포착되기보다는 근거성에 의해서 더 잘 포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속성의 '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 두 진영을 서로 비교하기 위해 나는 속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는지의 문제와, 시공간에 걸쳐 규칙적으로 배분돼 있는 속성 예화들의 패턴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의 문제를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로,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성향주의자들이 어

떤 식의 답변을 줄 수 있는지를,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을 바탕으로 검토해 봤다.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관계적인 본질을 갖기에, 결국 모든 자연적 속성들이 오직 다른 속성들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체성이 결정되게 되는 성향주의의 입장은 속성의 정체성이 단적으로 주어지게 되기 보다는 끊임없는 정체성-결정 과정의 고리에 빠지게 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결정해야만 한다는 순환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버드의 그래프 이론적 답변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한 속성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계들로 형성된 전체적인 구조 자체에 눈을 돌리 수 있게끔 환기시켜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구조라는 것이 해당 구조에 참여하고 있는 속성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즉, 구조 자체가 속성에 존재론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서 여겨지게 된다면, 구조에의 호소는 여전히 속성의 정체성이 순환적으로 결정되게 된다는 함의를 갖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속성의 정체성을 결정해주기로 돼 있던 구조가 다시금 속성에 의해서 그것의 정체성이 결정되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본고는 구조 자체를 속성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플라톤적 보편자로서 이해한다면, 그러한 순환성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의 핵심은, 구조가 그것에 의해 개별화되기로 돼 있는 존재자들과는 존재론적으로 독립적이게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답변이 그럴 듯 하다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은 정체성 퇴행 및 순환의 문제와 관련해 성향주의에 대한 이론적 우위를 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로, 추론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나는 성향주의자들이 질적 성향주의자들보다 그럴 듯한 답을 주고 있는 입장임을 주장했다. 암스트롱으로 대변되는 법칙주의자들이 추론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답변을 주지 못한다는 점은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서 지적돼 왔던 부분이다. 그러한 생각들의 주된 논거는, 암스트롱의 이차 보편자 N이 과연 그것에게 기대됐던 이론적 역할을 하기에 적합한 본성을 지닌 존재자인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비롯한다. 버드의 딜레마 논증은 특히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버드는 속성의 본성에 대한 암스트롱의 입장과 그가 N에게 기대하고 있는 이론적

역할이 서로 상충됨을 지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암스트롱의 자연법칙이 규칙성 사실의 성립을 필연화한다고 할 때 그러한 필연성이 무엇 덕분에 성립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을 환기시켰다. 이러한 고려에 비춰봤을 때, 성향주의자들은 어째서 특정한 규칙성 사실이 필연적으로 성립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줄 수 있다. 그것은 존재자의 본성으로부터 비롯한 필연성에 해당한다. 반면, 질적 성향주의자들의 답변은 암스트롱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다. 비관계적인 본질만을 갖는 속성이 '그저' 특정한 반사실조건문의 성립을 형이상학적으로 근거해줄 뿐이며 이로부터 특정한 규칙성 사실이 필연화된다. 추론 문제가, 규칙성 사실의 성립에 대한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제공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그럴 듯 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이상학적 설명이 무엇으로부터 비롯하게 됐는지를 묻고 있는 의문이라고 했을 때, 여전히 질적 성향주의자들에게는 규칙성이 성립하고 있다는 사실과 '힘이 있는' 속성이 예화됐다는 사실 사이에 설명적인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Armstrong, D. M. (1983). *What is a Law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89). *A Combinatorial Theory of Possibi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3). The Identification Problem and the Inference Proble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53 (2):421 - 422.

_____ (1996). *A World of States of Affairs*.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99). The Causal Theory of Properties: Properties according to Shoemaker, Ellis, and Others. *Philosophical Topics* 26 (1-2):25-37.

Audi, Paul (2012). Grounding: Toward a Theory of the In-Virtue-Of Relation. *Journal of Philosophy* 109 (12):685-711.

_____ (2016). Property Identity. *Philosophy Compass* 11 (12):829-840.

Bacon, John ; Campbell, Keith & Reinhardt, Lloyd (eds.) (1993). *Ontology, Causality and Mind: Essays in Honour of D M Armstro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ker, Stephen & Smart, Benjamin (2012). The Ultimate Argument Against Dispositional Monist Accounts of Laws. *Analysis* 72 (4):714-722.

Barker, Stephen (2009). Dispositional monism, relational constitution and quiddities. *Analysis* 69 (2):242-250.

Bauer, William A. (2013). Dispositional Essentialism and the Nature of Powerful Properties. *Disputatio* 5 (35):1-19.

Baysan, Umut (2019). Quidditism and Contingent Laws. *Thought: A Journal of Philosophy* 8 (4):286-290.

Bird, Alexander (2005a). Laws and essences. *Ratio* 18 (4):437–461.

_____ (2005b). The ultimate argument against Armstrong's contingent necessitation view of laws. *Analysis* 65 (2):147-55.

_____ (2006). Potency and Modality. *Synthese* 149 (3):491-508.

_____ (2007a). The regress of pure powers? *Philosophical Quarterly* 57 (229):513–534.

_____ (2007b). *Nature's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16). Overpowering: How the Powers Ontology Has Overreached Itself. *Mind* 125 (498):341-383.

_____ (2018). I—Fundamental Powers, Evolved Powers, and Mental Powers.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92 (1):247-275.

Bird, Alexander ; Ellis, Brian & Sankey, Howard (eds.) (2013). *Properties, Powers and Structures: Issues in the Metaphysics of Realism*. Routledge.

Black, Robert (2000). Against quiddit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8 (1):87 – 104.

Bostock, Simon (2008). In Defence of Pan-Dispositionalism. *Metaphysica* 9 (2):139-157.

Carroll, John W. (1994). *Laws of Na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i, Sungho and Michael Fara(2018). Dispositions. I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Retrieved from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18/entries/dispositions/

Coates, Ashley (forthcoming). Essence and the inference problem. *Synthese*:1-17.

_____ (forthcoming). Making sense of powerful qualities. *Synthese*:1-17.

Contessa, Gabriele (2015). Only Powers Can Confer Dispositions. *Philosophical Quarterly* 65 (259):160-176.

Corry, Richard (2011). Can Dispositional Essences Ground the Laws of Nature?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9 (2):263 – 275.

Crane, Tim (1995). The Mental Causation Debat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69:211-36.

Crane, Tim ; Armstrong, D. M. & Martin, C. B. (1996). *Dispositions: A Debate*. Routledge.

Cross, Troy (2005). What is a disposition? *Synthese* 144 (3):321-41.

_____ (2012). Recent Work on Dispositions. *Analysis* 72 (1):115-124.

Dumsday, Travis (2016). Lowe's Unorthodox Dispositionalism. Res Philosophica 93 (1):79-101.

_____ (2019). *Dispositionalism and the Metaphysics of Sc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llis, Brian & Lierse, Caroline (1994). Dispositional essentia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72 (1):27 – 45.

Ellis, Brian (2001). *Scientific Essenti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2002). *The Philosophy of Nature: A Guide to the New Essentialism*.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Fine, Kit (1994). Essence and modality. *Philosophical Perspectives* 8:1-16.

_____ (2005). *Modality and Tense: Philosophical Papers*. Oxford University Press.

Giannotti, Joaquim (forthcoming). The Identity Theory of Powers Revised. *Erkenntnis*:1-19.

Handfield, Toby (2005). Armstrong and the modal inversion of dispositions. *Philosophical Quarterly* 55 (220):452–461.

_____ (2008). Humean dispositionalism.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86 (1):113-126.

Handfield, Toby (ed.) (2009). *Dispositions and Causes*. Clarendon Press.

Hawthorne, John (2006). *Metaphysical Essays*. Oxford University Press.

Heil, John (2003). *From an Ontological Point of View*. Oxford University Press.

Hildebrand, Tyler (2014). Can bare dispositions explain categorical regularities? *Philosophical Studies* 167 (3):569-584.

Jacobs, Jonathan D. (2007). Causal powers: A neo-aristotelian metaphysic.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_____ (2011). Powerful Qualities, Not Pure Powers. *The Monist* 94 (1):81-102.

Jacobs, Jonathan D. (ed.) (2017). *Causal Powers*. Oxford University Press.

Ingthorsson, Rögnvaldur (2013). Properties: Qualities, Powers, or Both? *Dialectica* 67 (1):55-80.

_____ (2015). The Regress of Pure Powers Revisited. *European Journal of Philosophy* 23 (3):529-541.

Jaag, Siegfried (2014). Dispositional essentialism and the grounding of natural modality. *Philosophers' Imprint* 14.

Kripke, Saul (1980). *Naming and Necessity*. Harvard University Press.

Lewis, David K. (1973). *Counterfactuals*. Blackwell.

_____ (1983). New work for a theory of universal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61 (4):343-377.

_____ (1986). *On the Plurality of Worlds*. Wiley-Blackwell.

_____ (1987). *Philosophical Papers: Volume 2*. Oxford University Press USA.

_____ (1997). Finkish dispositions. *Philosophical Quarterly* 47 (187):143-158.

_____ (2009). Ramseyan humility. In David Braddon-Mitchell & Robert Nola (eds.), *Conceptual Analysis and Philosophical Naturalism*. MIT Press. pp. 203-222.

Locke, Dustin (2012). Quidditism without quiddities. *Philosophical Studies* 160 (3):345-363.

Lowe, E. J. (2005). *The Four-Category Ontology: A Metaphysical Foundation for Natural Science*. Clarendon Press.

_____ (2009). *More Kinds of Being: A Further Study of Individuation, Identity, and the Logic of Sortal Terms*. Wiley-Blackwell.

Marmodoro, Anna (ed.) (2010). *The Metaphysics of Powers: Their Grounding and Their Manifestations*. Routledge.

Marmodoro, Anna & Yates, David (eds.) (2016). *The Metaphysics of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UK.

Marmodoro, Anna & Mayr, Erasmus (2019). *Metaphysics: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Debates and Their History. Oup Usa.

McKitrick, Jennifer (2003). The bare metaphysical possibility of bare dispositions.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66 (2):349–369.

Meincke, Anne Sophie (ed.) (forthcoming). *Dispositionalism. Perspectives from Metaphysics and the Philosophy of Science*. Dordrecht, Netherlands: Springer.

Molnar, George (ed.) (2003). *Powers: A Study in Metaphysics*. Oxford University Press.

Mumford, Stephen (1998). *Dispositions*. Clarendon Press.

_____ (2002). *Laws in Nature*. Routledge.

Psillos, Stathis (2002). *Causation and Explanation*. Routledge.

Sankey, Howard (ed.) (1999). *Causation and Laws of Nature*. Kluwer Academic Publishers.

Schaffer, Jonathan (2005). Quiddistic Knowledge. *Philosophical Studies* 123 (1-2):1-32.

_____ (2016). It is the Business of Laws to Govern. *Dialectica* 70 (4):577-588.

Schrenk, Markus (2010). The Powerlessness of Necessity. *Noûs* 44 (4):725-739.

Shoemaker, Sydney (1980). Causality and properties. In Peter van Inwagen (ed.), *Time and Cause*. D. Reidel. pp. 109-35.

_____ (1998). Causal and metaphysical necessity.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79 (1):59–77.

Sider, Theodore R. (1992). Tooley's solution to the inference problem. *Philosophical Studies* 67 (3):261 - 275.

Smith, Deborah (2016). Quid Quidditism Est? *Erkenntnis* 81 (2):237-257.

Tahko, Tuomas E. (ed.) (2011). *Contemporary Aristotelian Metaphys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Tugby, Matthew (2012). Rescuing dispositionalism from the ultimate problem: reply to Barker and Smart. *Analysis* 72 (4):723-731.

_____ (2013). Platonic Dispositionalism. *Mind* 122 (486):451-480.

_____(2014). Categoricalism, dispositionalism, and the epistemology of properties. *Synthese* 191 (6):1-16.

_____ (2016). Universals, laws, and governance. *Philosophical Studies* 173 (5):1147-1163.

_____ (forthcoming). Grounding theories of powers. *Synthese*:1-30.

van Fraassen, Bas C. (1989). *Laws and Symmetry*. Oxford University Press.

Vetter, Barbara (2015). *Potentiality: From Dispositions to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Wang, Jennifer (2016). The Nature of Properties: Causal Essentialism and Quidditism. *Philosophy Compass* 11 (3):168-176.

_____ (2019). The Essences of Fundamental Properties. *Metaphysics* 2 (1):40-54.

Whittle, Ann (2003). Singularism.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103 (1):371-380.

Williams, Neil E. (2019). *The Powers Metaphysic*. Oxford University Press.

Yates, David (2013). The Essence of Dispositional Essential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7 (1):93-128.

Abstract

The Metaphysics of Dispositionalism

NA Youngin
Department of Philosoph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positonalism is the metaphysical position that every fun damental natural properties are irreducibly dispositional. Accord ing to dispositionalism, the soure of objects' dispostions(or som etime called 'causal powers') is nothing but objects' intrinsic pr operties. Dispositionalists claims that 'dispositionality', which wo uld be aptly characterized by 'directedness to wholly distinct exi stences', is the fundamental and genuine feature of the natural worlds. On the basis of this sort of thought, dispositionalists be stow dispositional essence to every fundamental natural properti es and try to explain objects' causal/nomic behaviours invoking their essentially dispositional properties. Dispositionalism contra sts sharply with Categoricalism, which is the metaphysical view that what objects might/must do in various circumstances are n ot wholly determined by properties but only with natural laws. According to Categoricalism, the intrinsic nature of natural pro

perteis contains nothing ‘interesting’, so in principle, object’s ca usal capacities or potentials are determined regardless of which properties the object instantiates.

But recently, there has been suggested that even though natu ral properties are not essentially dispositional, they can metaph ysically necessitate the causal powers of the objects. According to so called, ‘Qualitative Dispositionalism’, there exists necessary connection between the fact that the object instantiate certain p roperty and the fact that the object have certain dispositions, e ven though it is not the essence of the property to confer dispo sitions to its bearer. Qualitative Dispositionalists claims that pro perties just simply metaphysically ground the causal power of t he object.

In this thesis, there are three main aims to achieve. First, I would clarify the differences between Categoricalism, Dispositio nalism and Qualitaitve Dispositionalism. Concerning the rising i nterest about the dispositionalist’s explanation about the natural modality, and the recent appearance of Qualitative Dispositonali sm, my first aim would be worth it. Second, I address the class ic ‘Identity Regress and Circularity Problem’, which was raised by E.J. Lowe to Dispositionalism. I suggest that if the structure s, which is appealed by dispositionalist to individuate essentially dispositinal properties, are construed as Platonic entities, then d ispositionalist may be free of the regress charge. If this suggesti ion is plausible, then Qualitiave Dispositionalism is not preferab le to Dispositionalism at least regarding property individuation. Thrid, I claim that Dispositionalism can successfully answer the Infenrence Problem, but Qualitative Dispositionalism cannot. Es pecially, if the second and the third aim can be achieved succe

ssfully, then it would motivate to commit Dispositonalism rather than Qualitiatve Dispositionalism.

keywords : Dispositionlism, Categoricalism, Qulitative Dispositionalism, Identity Regress and Circulairty, Inference Problem
Student Number **: 2017-22963**